

# 速記界

2008-44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Contents

>>>>> >>>> >>> >

▶ 표지설명



태조, 태종, 세조의 수필은 각자  
오만의 위대한 '連', '記', '界'  
를 형성

수필은 글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형시켜 만든 서명(Signature)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  
대 이전부터 문서를 작성하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음을 표시  
할 때 수필을 하였으며, 수필(手  
筆)·획법(筆法)·서명(署名)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수필은 신문에 따라 사용할 수 있  
는 행이기가 많았으며, 그 구분도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특히, 임금  
의 수필을 나타내는 마인(御筆)은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면서 국가  
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  
니고 있어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  
졌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도 매  
우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제공)

## 권두언

- 4 |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가자 / 고흥길

## 국회개원 60주년 특집

- 6 | 국회속기록은 國寶다 / 조영기

## 아시나요?

- 20 |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을 보실 수 있어요! / 홍보부

## 인터스테노

- 22 | 2007 INTERSTENO 총회 참가보고 / 국제부

## 기자 스케치

- 30 | 6·3항쟁 기록 세미나를 다녀와서 / 권초롱 기자  
35 | 태안, 그곳에서 기름을 닦다 / 김지숙 기자  
4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의 출장!! / 이경진 기자

## 리포트

- 48 | 경기도 속기사 현황 / 이현숙

## 53 | 추억의 앨범

## 세미나

- 54 | 첫 세미나 / 김나영



2008 제 44호

**새 의자**

58 | 긍정의 힘으로 9988 123 / 정란

**새내기 속기사**

62 | 속기사로 거듭나기 / 손선락  
66 | 또 다른 시작 / 신동선  
70 | 거북이걸음으로 국회에 오다 / 이은영

**회원등산**

74 | 의원님, 고칠 게 있습니다 / 이정숙  
79 | 낯선 곳에 가서 친구 사귀기 / 최윤정  
84 | 영원한 나의 멘토, 그녀에게 보내는 이메일 / 김영중  
86 | 나의 인연 / 강영옥  
91 | 90동기들의 화려한 탈출 / 김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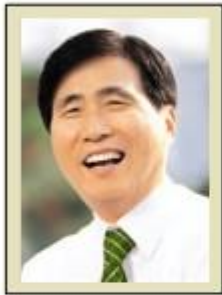
**협회동정**

98 | 국회의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101 | FOCUS  
102 | 41회 총회  
103 | 기구표

**편집후기**

www.steno.or.kr

##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가자”



국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우리 헌정사를 사관으로서 묵묵히 기록해 온 국회 속기인 여러분!


또한 기초 및 광역의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각 지방의회 속기인 여러분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인터넷 등 각종 디지털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통하여 변화와 개혁의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일조차 오늘의 뉴스거리가 될 수 없을 만큼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곧 후퇴하는 것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현상은 그대로 속기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달과 언어속도는 빨라져만 가고 속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은 날로 전문화되어 그 범위 또한 방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기환경의 변화는 우리 속기인들을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끊임없는 자기 연마 없이는 진실되고 정확한 속기록의 작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정치의 산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국회 속기사를 비롯하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오로지 긍지 하나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속기인 여러분!



이제 우리 속기인들은 자기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이며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섭렵은 물론 끊임없는 실력배양으로 자기계발에 더욱 정진해야만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얼마나 빨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가정에서조차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만드는 회의록 또한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즉시 검색 가능한 정보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속기협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용어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소개하는 등 속기인들의 속기환경의 변화에 민감히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속기인들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속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은 적응이 아니고 퇴보를 의미하는 시대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거듭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새로이 시작하는 18대 국회에서도 속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르게 기록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속기록은 國寶다”

| 조영기(홍보이사·국회 의정기록2과 서기관) |



200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헌법을 성명하여 공포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 KBS 제1TV에서는 제헌절 60주년 특집으로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는 프로그램을 오후 10시부터 1시간여 방영하여 국회속기록이 집중 조명됨으로써 국회속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를 인용 또는 각색하여 국회속기록을 제조명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가 “참다운 시간은 그 본질상 하나의 연속이자 동시에 영원한 변화이다. 과거는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에 불가결하다”고 설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궤적을 살피는 시간여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의 과정이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영원한 변화



이지만, 어느 시대이건 역사의 재조명의 중요성은 '발전된 미래상을 창출하기 위한 약속' 이기 때문이다.

### “국회속기록은 현대판 사초”



〈국회회의록〉

2008년은 건국 60주년, 국회 개원 60주년, 제헌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耳順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영욕으로 점철된 한국현대사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긴박했던 역사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속기사가 있었고, 국회 내 발언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역사로 남아 있다.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문화가 존재하고, 인류는 기록의 수단으로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했다. 따라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헌국회 이래 현재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속기록만 한 것이 없을 듯싶다. 국회속기록은 500여 년 전 사관들에 의해 기록된 사초를 가지고 쓴 왕조실록에 버금간다 할 만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 실록은 어전에서 논의된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역사책이지만 국회속기록은 '현대판 사관'인 속기사들이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감 없이 기록한 것으로 가장 사실에 가까운 사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회속기록은 그 어느 사료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사초' 바로 그것이다.



// 주 : 제헌국회부터 제4대국회까지는 '국회회의록(의사내용의 요점만 기록)' 과 '국회속기록(속기방법에 의하여 발언한 대로 기록)' 두 가지로 작성하였다. 제5대 국회부터는 이 둘을 통합하여 '국회회의록' 하나로 작성하였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국회 발언의 속기록 기재와 보존, 이것은 역사의 큰 증거물이고 역사 그 자체입니다.”

(임채정 17대 국회의장)



“나는 속기록을 가리켜서 국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의 산 보물입니다. 그것은 한번 쏟아놓은 발언은 몽궤 수도 없는 거고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기는 거냐, 후세를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김수한 15대 국회의장)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속기자들이 역사적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역사로 남는다. '현대판 사초'인 국회속기록은 한국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모두(2056권) 국회 지하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에 열린 제2대국회(1950년 6월 19일에 개원) 제7회 국회 1·2차 회의는 기록이 되었는데 동란 발발 전후 3차 회의(인쇄도 중 분실)와 그 이후 9·2) 서울수복까지의 피난국회(8회국회 1 ~ 37차) 회의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최예숙 국회 의정기록1과 서기관)





〈제헌국회 개회식〉

// 참조 : '제헌국회 시 의원선서문'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민족의 염원이 담긴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빛나는 역사적 조국재건과 독립완수의 중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남북통일의 대업을 수행하는 한편 모든 법률에 의한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만년의 기초 확립과 국리민복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우리나라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항구적 평화에 공헌함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기로 이에 순국선열과 삼천만 동포 앞에 심가 선서함.”

## 험난한 史官의 길

국회속기록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생생한 기록으로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속기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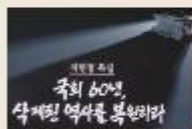
회의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져 날아드는 기물(제헌국회 시 명패 투척 소동)에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의로 뿌린 오물을 뒤집어쓴 일도 있었고, 야당의 원에게 속기원문을 빼앗겼다가 간신히 되찾아 속기록을 만들어낸 일(1958년 12월 보안법 파동 시 범사위)도 있었다.



날치기 현장에도 어김없이 속기사는 있었다. 심지어는 밤늦도록 은밀히 숨어 있다가 변경된 회의장에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가야 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때론 욕설이 오가거나 여러 분의 의원들이 동시다발로 얘기를 하면 어느 발언을 적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도 많았다.

이처럼 국회속기록의 이면에는 속기사들의 남모르는 애환도 함께 서려 있다. 그러나 '현대판 史官'인 속기사들은 오로지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긍지와 역사적 사명감으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오늘날 현대사의 생생한 기록인 국회속기록을 남겨 후세의 사초로서 이 시대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모든 발언은 빠짐없이 기록된다. 의원들의 막말도 역사에 남는다.

1966년 9월 21일 제5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 발언하던 김두한 의원은 발언 말미에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봐라.”며 국무위원석을 향해 사카린 상자를 쏟아 부었는데 뒤이어 오몰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똥이나 쳐먹어 이 새끼들아!”  
(장내소란)  
("산회선포해요"하는 이 있음)

기록은 여기서 끝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표현에서 이수라장이 된 그때



상황을 능히 짐작할 만하다. 그때 당시에는 국무위원석이 발언대 바로 왼편에 배치되어 의원석을 마주 보며 앉게 되어 있었기에 국무위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오물의 파편을 그대로 맞았고, 발언대 가까이 있었던 속기사 또한 오물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날치기 처리의 전형으로 꼽히는 95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47개 법안을 30초 만에 처리)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

“저희(속기사)는 그것이 실사 변칙처리라고 할지라도 길이 역사에 남는, 우리 의정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최예숙 국회 의정기록1과 서기관)

7대 국회는 3선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섰다.  
야당인 신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해 개헌안 처리를 막았다.  
그러나 여당은 새벽에 국회 별관에서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 날치기 현장에도 속기사는 있었고 전 과정을 그대로 기록했다.

“새벽 한 2시경에 3별관으로 가라, 속기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3별관 쪽문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정문 쪽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3층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공화당 의원이 (나중에 기록에 의해 확인) 122명인가 그랬어요.”

(체강희 3선 개헌안 통과 기록 속기사)

(2004년 3월 12일 246회 제2차 본회의) 속기록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17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정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34분 동안의 긴박했던 현장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의회 단상을 벗어난 방청석 발언도 기록됐다.



3선 개헌안은 1969년 9월 9일 제72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0시 47분)되어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9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새벽(새벽 2시 29분 ~ 2시 38분 : 9분여 소요)에 통과되었다.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었으므로 여당 의원 122명이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이 아닌 태평로 길 건너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 은밀히 집결하여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처럼 속기사에게는 변칙적인 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고뇌스럽고도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역사현장의 파수꾼'인 속기사들은 최대한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하여 밤을 꼬박 새워가며 작업을 하기도 했다.

### 사라진 기록들

속기사는 '말의 사진사'로 말한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그러나 모든 발언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발언들이 사후에 삭제돼 공식기록에서 사라져 갔다.

초대 국회는 정치적 혼란기에 탄생했지만 민의는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다. 초대 국회의 속기록에서는 삭제를 찾아볼 수 없다. 입법부가 나름대로 독립적이었다는 증거다.

5·16 군사쿠데타와 함께 박정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최초로 헌정이 중단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했지만 발언이 삭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중앙정보부 해체 주장도 남아 있다.

권력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삭제되지 않은 건 야당의 견제 때문이었다.

국보위 입법회의록에는 삭제가 거의 없다. 정권에 예속된 입법의원들의 발언은 삭제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부산 피난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택상 부의장이 조병옥 내무부장관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항의를 받은 장택상 부의장이 담당 속기사에게 속기록 삭제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속기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초대 국회(1·2대 국회) 당시에는 속기록 삭제는 물론이려니와 발언을 수정 보완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당시에는 틀린 말일지라도 그대로 적고 발언자가 자기 발언을 취소해도 취소한다는 발언까지 그대로 기록되었을 만큼 국회속기록은 가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국회속기록에서 지워진 발언들은 권력의 속성과 시대상황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신헌법에 기초해 9대국회가 출범했지만 독재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한다.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감시하고 검열했다.

106건 삭제(주: 여기서의 삭제는 불계제부분을 의미함)된 9대국회에서 정권 발언은 삭제 대상이었다. ‘긴급조치’와 ‘김대중’ 또한 최대 금기어였다.

여당인 공화당 출신 의장의 주도 아래 발언은 잇따라 삭제됐고 야당의 저항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말은 우리가 하겠다. 통치자가 하겠다, 듣기만 해라,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입으로 말하든 글로 말하든 말하는 것인데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온 국민의 입에 족쇄를 물리는,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임채정 17대 국회의장)



“그 당시에 이렇게 속기록이 난도질을 하고 많이 고쳐졌느냐 하면 당시에는 속기록을, 고치고 삭제하는 권한이 의장한테 너무 강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김수환 15대 국회의장)

쿠테타 주역이었던 신군부 인사들이 11대국회에 대거 진입했다. 국회는 권력 앞에 엎드려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식물국회'에 불과했고 정당정치는 실종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통치에 필요한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내부에서 그나마 유의미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부딪치던 그런 정도 역할 외에는 '통범부 거수기'라고 하는 당시의 비아냥이 표시하듯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17대 국회의장)

그런데도 전두환 치하의 11대국회 때가 국회 역사 60년을 통틀어 의원들의 발언이 가장 많이 삭제(150건)되던 때로 나타났다.

5공 시절은 '광주'가 금기어였다.

이들 발언들은 글자 대신 삭제부호로 처리되었다.

6~7대 국회 중 12건은 아예 내용을 삭제하여 보존회의록에도 남아 있지 않았는바, 본회의록에서는 삭제부분을 “.....”로 표기하고, 회의록 말미에 “※본회의록중「.....」부분은 발언취소된 것임”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삭제부분을 “●●●●”으로 표기하고 회의록 말미에 “註：●●●●은 삭제부분임.”이라고 표기한 것이 있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부분에 그냥 “「●●●●」”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 “○○○○”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어 위원



회의 재량에 따라 표기방식을 달리한 듯싶다.

1975년 7월 8일 시행된 임시회의록발간에관한지침에 의해서는 임시회의록에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과 취소하게 한 발언도 게재하여 의원에게만 배부·열람케 한 다음 당일 회수하고 배부회의록에는 동 부분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1982년 4월 10일 제정된 국회의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불게재부분은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있다.

제9대국회에서는 삭제부분을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 . . . -”로 표기하고, 그 발언 말미에 “(- . . . - 부분은 의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삭제)”라고 표기하였다.

제12대국회 이후 불게재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 . . . -”로 표기하고, 회의록 말미에 “(- . . . - 부분은 국회법 제111조 제1항(현재는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고 표기하였다.

// 참조 :

○ 불게재(비밀·국가안보 위해 필요한 때 불게재) 현황

- 제헌~제5대 국회 : 불게재 사례 없음
- 제6대~제7대 국회 : 내용삭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12건)
- 제8대~제16대 국회 : 배부회의록에는 불게재, 보존회의록에만 게재(436건).  
다만 제13대국회 이전에 10건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 있음

■ 제6대국회 ~ 제7대국회

대별	총 불게재 건수	기록 없는 건수	비고
6대	9	9	불게재 부분 삭제
7대	3	3	
계	12	12	



■ 제8대국회 ~ 제16대국회

대별	총불계재 건수	기록없는 건수	비고
8대	5	1	불계재 부분 삭제
9대	106	4	
10대	7	3	
국보위	1	.	
11대	150	1	
12대	127	.	
13대	12	1	
14대	6	.	
15대	5	.	
16대	17	.	
계	436	10	

“사라진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국회의원들의 몫”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국회회의가 생중계되고 국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속기록에서도 예전에는 흔하던 삭제 부호를 찾기 힘들다.

국회는 현재 6대국회 ~ 14대국회까지는 오디오 파일로, 영상회의록은 본회의의 경우 15대 국회인 1998년 187회 국회부터, 위원회의 경우는 17대 국회부터 서비스 되고 있다. 따라서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회의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속기록 불계재나 속기록 정정의 의미가 퇴색되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그런데 16대국회 들어 속기록 삭제가 일어났다.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 국회속기록에는 여전히 삭제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에서도 2004년 2월 4일 속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며, 자구정정 발언  
이나 취소의 발언도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는 명문규정(국회법 제117조 제  
3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불게재부분이 있을 뿐 “속기  
록 삭제”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의원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속기록 삭제’ 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과거 ‘속기록 삭제의 추억’ 때문일까……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中

기록은 역사를 담는다.  
하지만 국회 속기록을 보면 독재시절 저항의 역사는 지워져 그 흔적조차 찾  
기 힘들다. 대신 권력에 대한 독점과 굴욕의 역사만 남아 있다. 이제 국회 스스  
로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이 한 행위를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를 전달하는 것, 그걸 역사의 기록에서 삭제를 한다면 이건 아마 왕조시대에도  
없던 그런 횡포고, 물론 앞으로는 없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前 의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그 기록을 살려내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또 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118조에 그렇게 된 건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걸 없애야 되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니까 스스로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선 前 의원)

“속기록에서 삭제된 기록도 역시 국회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공개 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과는 별도의 그러한 삭제 기록으로서 공개를 해서 속기록의 부록으로 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

// 참조 :

불계재부분의 열람·복사

- 의원의 경우 : 신청 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가능함
- 의원 이외의 경우 : 불가능함

불계재부분의 일반공표는 불계재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국회법 제118조제4항). 다만 이에 관한 규칙 불비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 윤언여한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역사이고, 올바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에 비로소 밝은 미래가 약속되기 때문이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中



“의원님들도 각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다’, ‘윤언여한’ 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나라님 말씀은 한 번 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는 표현은 비단 나라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자 헌법기관인 우리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그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예숙 국회 의정기록1과 서기관)

// 참조 :

윤언여한(綸言如汗) : 禮記에 나온 말로, ‘땀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번 내린 임금의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경구이다.

이순을 맞은 18대국회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과거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역사로 길이 남을 18대 국회속기록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것은 온전히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속기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의 파수꾼’으로서 ‘역사의 증인’으로서 귀중한 보물을 빛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을 보실 수 있어요!

| 홍보부 |

책자 회의록으로 보존되어 오던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이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등록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약 6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지난해 말 등록 완료했는데요, 총 17권의 책자 형태 회의록이 텍스트화 작업을 거쳐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4·19혁명으로 출범됐던 5대 국회(60. 7. 29.~ 61. 5. 16.)가 5·16 군사정변에 의해 9개월 18일 만에 막을 내리고 국회를 대신하여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5월 20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무소불위 최고의 권력기구로 군림하는, 국회의 모든 권한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관사의 제청권까지 가진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최고 통치기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동안 최고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하네요. 이번 작업을 통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김종필 씨(前 자민련 총재)의 5·16 군사쿠데타에 관한 경과보고가 실려 있는 1차 회의(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법(61년 제1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1년 제29차) 그리고 민정이양을 골자로 한 5차 헌법개정 등 2년 7개월간의 61차 회의를 일반인들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둘러보심도 좋을 듯하지요?





〈최고회의 책자형 회의록〉

**國家再建最高會議本會議會議錄 第 1 號**

---

日 時 1961年5月19日  
場 所 軍革命委員會會議室

---

(13시00분 개회)      전부 결행하였다.

<p><b>1. 개회사 (의장)</b> 가. 군사혁명위원회의 중대한 사명과 조국을 재건하자는 성스러운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명 이후 함께 굳 각 지휘관, 참모 및 전 용사들의 노고와 업적을 찬양한다. 특히 박 장군 이하 여러 장군의 업적을 치하한다. 나. 혁명의 제1단계인 군사적 행동은 일단락되고 우리가 목적인 바를 실시하는 제2단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마음과 무절한 혁명 목적 달성을 기초로 하여 굳은 단결을 조성해서 엄격한 군기를 확립하고 모든 능력과 지식을 총망라하여 혁명 과업을 단시일 내에 완수하고 조국을 재건하는 역사적 시간을 이룩해야 한다.</p> <p><b>2. 경과보고 (김종필)</b> 가. 작년 4-19 학생 피거에 이어서 곧대 내에</p>	<p><b>3. 위원 선서</b> 의장 선출 후에 권 위원외 기립, 선서를 행하다.</p> <p><b>4. 기구 설립 (김종필)</b> 군사혁명정권 기구(안)에 대하여 설명하다.</p> <p><b>5. 명칭 개칭 (김의사람)</b>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할 것을 기수 표결로서 가결하다.</p> <p><b>6. 내각 조직 (김의사람)</b> 각료를 전원 군인으로서 임명하되 5명의 기초위원을 선출하자는 한 선 위원외 동료가 기수표결 결과가 10표, 부 9표로서 가결되다. 기초위원의 선출 방법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조건 포함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을 인기명으</p>
--	--

〈최고회의 전자회의록〉



# 2007 INTERSTENO 총회 참가보고

| 국제부 |



1. 기 간 : 2007년 7. 19(목) - 7. 27(금)
2. 장 소 : 체코 프라하 University of Agriculture
3. 한국대표 : 홍은주(협회 회원, 국회)  
오근순(협회 사업부장, 국회)  
유미형(협회 총무부장, 국회)  
이현숙(협회 회원, 용인시의회)

#### 4.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31개국 473여 명 참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

일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이탈리아, 인도, 중국, 체코,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한국, 헝가리

### 5. 참가 목적

- 속기의 국제적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할 우리의 방향 모색
- 한국의 속기를 세계에 알리는 등 친목 도모를 통한 국제적 위상 증대
  - 2007년 인터스테노 총회 참가 및 체코 의회 시찰
  - 해외 속기 자료 수집, 정보 교류
  - 우리나라 속기 및 회의록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 모색

### 6. INTERSTENO 총회 일정

7.19(목) | 총회 집행부 사무실 오픈  
다국어 속기경기대회

7.20(금) | 다국어 속기경기대회(계속)  
인터스테노 위원회 미팅

7.21(토) | 중앙위원회 미팅  
환영의 밤(개막식 행사)

7.22(일) | 의회속기사부(IPRS) 미팅  
속기경기대회 참관  
— 텍스트 산출 + 수정



- 워드프로세스
- Speech Capturing
  - 그래픽
  - 속기/키보드
  - 음성인식

7.23(월)

- 속기경기대회 참관(계속)
- 실시간 번분
- Speech Capturing
- 속기기계 관련 프리젠테이션과 워크숍
- 중앙위원회 미팅

7.24(화)

- 강연 I
- 강연 II

7.25(수)

- Youth day
- 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미팅

7.26(목)

- 중앙위원회 미팅
- 속기경기대회 시상식
- 연회

## 7. INTERSTENO 총회 행사 내용

- 대한속기협회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2007년도 INTERSTENO 제



46차 총회(Intersteno Congress)가 한국 대표 4명을 포함하여 모두 31개국에서 47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또한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 수만 해도 47만여 명에 달해 이번 총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줌.

• Opening 행사(7.21)

참가자들이 각국 언어로 인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우리 측에서는 홍은주 회원이 간단한 인사말을 했음.



• 속기경기대회(7.22 ~ 23)

다국어 속기경기대회에서는 독일인인 Boris Neubauer 씨가 무려 17개 언어를 가지고 1등의 영광을 누렸으며, 실시간 속기대회에서는 이탈리아의 Francesca Cabiati 씨가 1등의 영광을 누림. 2등은 중국의 Yan Liu 씨가 차지하였는데 그동안 유럽 쪽에서 휩쓸던 상을 같은 동양인이 수상해서인지 우리나라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됨.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참여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회속기사부(IPRS) 미팅(7.22)

IPRS 미팅에서는 체코 의회 방문의 기회를 가졌으며 세계 의회인들과의 보다 더 돈독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음. 아이슬란드 Maria Greta Gudjonsdottir 회원의 제안으로 IPRS 미팅의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서 기존 총회 기간 외에 향후 정기적인 IPRS 미팅을 가질 것을 제안함.



각국 참가자들의  
경기대회 준비 모습

• 강연과 발표(7.24)

강연은 Part I 과 Part II로 진행되었으며 「기록의 전통적인 그리고 새로운 산출물-직업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가치」, 「정보 처리(펜에서 음성인식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됨.

또한 「텍스트 캡처링 기술의 통합 교습, 종사자의 자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Dr. Klaus Ramming와 Fabrizio Verruso 등이 발표하였으며 「속기와 음성인식 기술 : 기술자의 시각에서」 「속기와 음성인식기술의 사용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Dr. Carlo Aliprandi 외 여러 명이 발표하였음.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되어서 기존 속기방식에의 적용 등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됨.

• 중앙위원회(7.21/23/26)

- 1) 중앙위원회(Council)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대표로 홍순관 부회장을 선임함.
- 2) INTERSTENO 운영위원장인 Jaroslav Polacek는 2009년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총회인 중국 베이징 총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2008년 중앙위원회와 특별 IPRS 미팅 일정을 결정함.

⇒ 2008 중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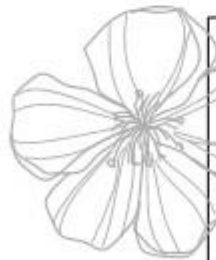
- 장소: 폴란드 티히(Tychy)
- 일시: 2008. 9. 19 ~ 22

⇒ 2008 IPRS 미팅

- 장소: 네덜란드 헤이그(Hague)
- 일시: 2008. 8. 20 ~ 22

• 속기경기대회 시상식(7.26)

- 텍스트 생성/수정 부문(시니어부) 1위 : Vaclav Mikula(체코)
- 프로페셔널 워드 프로세싱(시니어부) 1위 : Petr Sekanina(체코)
- 속기/스피치 캡처링 그래픽(시니어부) 1위 : Josip Hanjs(크로아티아)
- 속기/스피치 캡처링 속기기계/키보드(시니어부) 1위 : Laura Brewer(미국)
- 실시간 번문(시니어부) 1위 : Francesca Cabiati(이탈리아)
- 다국어 속기(시니어부) 1위 : Boris Neubauer(독일)



속기경기대회  
시상식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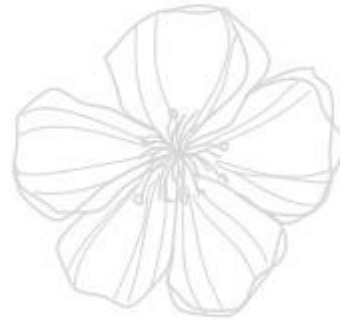




## 8. 성과 및 건의사항

- 1) 세계 각국의 기록문화 및 속기 기계화의 추이에 대한 정보 교환과 자료 공유를 통해 속기인들의 국제적 연대 강화와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기록문화 향상과 회의록 서비스 체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동시에 체코 문화 탐방을 함으로써 속기협회 회원들의 사기 앙양과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기여함.
- 2) 속기계의 국제행사인 INTERSTEN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한국 속기의 세계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속에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됨.
- 3) 인터스테노 총회에서 경기대회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실시간 변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를 치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속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그 다양성을 우리는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느껴짐.
- 4) 우리가 본 영어 음성인식기의 수준은 기존의 방식에서 더 업그레이드되어 속기기계 + 음성인식기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음. 그 스폰서는 우리에게 곧 우리 언어로 된, 그리고 좀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글로 옮길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해 주었음. 우리 의회 기록의 방향도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속기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기록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5) 2008년 8월 IPRS 미팅과 9월에 열리는 중앙위원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총회인 2009년 베이징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인 만큼 또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짐.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더욱 많은 상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됨.
- 6)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참가경비를 국고에만 의존해서 하기보다 자비 부담을 늘려 참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됨.





## 6·3항쟁 기록 세미나를 다녀와서

| 권초롱 기자 |

▶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최로 열린 6·3항쟁 기록 세미나와 6·3항쟁 민간기록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6·3 그날의 기억과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더불어 기증자의 전시물 설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은 『6·3자료의 기록적 가치』라는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록의 허점을 지적하고 민간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6·3항쟁의 기록에 국한되지 않은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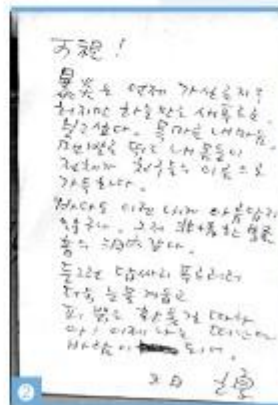
Seminar  
Record

넓은 강의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김 회장은 발표를 시작하면서 신입사원 면접시험 때의 예를 들며 '6·3세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면접시험 시 같은 질문을 응시생들에게 던지면 '63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아닙니까?' 혹은 '63년도에 대학을 다닌 세대가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다며 6·3항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6·3항쟁은 한일회담 저지를 위해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전개된 시위입니다. 한일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굴욕적이라고 보고 회담과 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반대하여 일어난 1960년대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 가운데 하나이지요.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한일 간 역사교과서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많은 논란과 한일 협정의 결과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2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도현 전 문화체육부장관(당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4학년 재학) 또한 이날 "작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6·3학생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민주화는 경제적 산업화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6·3운동의 대상이었던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민주화운동이 극복하고자 했던 대상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백 명의 학생이 체포, 구속, 제명 등을



- ① 29일 세종로 종합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6·3그날의 기억과 기록' 세미나 \_박윤혜 기자
- ② 김지하의 목중 엽서 \_국가기록원

당했고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해서 군을 동원해서 수습했던 치열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항쟁의 기록을 그간 공적 기록만이 담당해 왔던 것은 어찌면 기울어진 지렛대와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선보인 기증 기록은 당시 6·3항쟁에 참여했던 송철원 씨(당시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와 그의 부친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총 40여 종, 1만 매 분량의 기록으로 송철원 씨가 시위 주도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모, 65년 항쟁 1주년을 맞아 2차 시위를 위해 작성한 미발표 선언문, 아들의 활동을 보며 쓴 부친의 일기, 6·3항쟁 수배자 벽보, 변회일기, 항쟁에 함께 참여했던 김지하 씨 등 친구들과 주고받은 엽서,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매일 스크랩한 문서철 등 그 양이 참으로 방대했습니다. 특히 그 스크랩은 기성 제품이 아니라 부친인 송상근 씨가 당시 철도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에서 사용한 폐지를 재활용하여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손으로 붙여 만든 것이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재까지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6·3항쟁에 관한 기록이 검찰과 법원 등 정부기관의 공식 기록이었던 데 반해 이번에 기증된 기록은 항쟁 주역들의 주장과 활동에 관한 생생한 사실을 수록하고 있어 역사적 진실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록원 측은 밝



Seminar  
Record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균형 있게 조명하고 공적 기록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원장 정진철)은 이러한 민간기록의 소중함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기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취약한 보존환경에 방치돼 있는 민간 소장 역사기록물을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기증·위탁보존·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좌언이우사(左言而右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의 사관은 군주의 말을 기록하고 오른쪽의 사관은 군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다’는 말로 당태종 시대 장온고가 한 말입니다. 김학준 회장은 ‘조선왕조실록’을 남긴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선조들이었다고 밝히면서 위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사관이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 누구에게 시선을 주고 무슨 몸짓으로 말하는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작성된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성공한 후손이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 조상의 묘소에 없던 비석을 세우고 그 내용에 조상의 공적을 미화하는 내용까지 새겨 넣으면서 오래돼 낡은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까지 했더라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조된 기록은 당사자뿐 아니라 선조에게도 누를 끼친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많은 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기록은 권력’이라고 말한 김 회장의 말은 진실한 기록은 권력을 획득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청중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컸겠지만 기록을 담당하는 우리 속기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한 옛 사관의 역할을 현 시대에 함께 감당하고 있는 언론인 그 자신에

# Seminar Record

계도 중요한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학준 회장의 발표에 이은 전시 관람회에서는 기증자인 송철원 씨의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 전 차관은 “송철원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있던 메모와 검찰조서상의 진술을 발견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하며 당시를 질게 회상하는 듯했습니다. 듣고 있는 저 또한 숨어 있던 기록이 다시 나타나 사라졌던 기억을 여실히 환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늘 인지하고 있고 수시로 다짐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를 또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은 『뉴 패러다임, 웹 아카이빙! - 웹 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2008. 6. 27.)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우리에게도 유용하고 볼 만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만

허락된다면 국가기록원에서 준비하는 행사에 참여해 보고 배우는 좋은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③~④ 세미나 전시자료 \_ 박윤혜 기자



## 태안, 그곳에서 기름을 닦다

| 김지숙 기자 |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그 사고는 바로 인천대교 건설을 위해 사용되던 대형 크레인선을 운반하던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들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인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 사고로 태안반도는 물론 주변 바다가 모두 죽음의 바다로 변해 버렸다. 언론에서는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라는 표현

Tae-an

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다녀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라는, 그야말로 더 할 나위 없이 최악이라는 그 표현마저도 태안의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인, 너무나 역부족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번 사고로 바다에 쏟아 부어진 원유는 무려 1만 900t(1만 2547kl)이라고 한다. TV 뉴스를 통해 본 검은 바다의 모습…… 그중 특히 나의 마음 깊이 박혀 버린, 검은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 가득 뒤집어 쓴 채 눈만 깜빡거리고 있던 새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사고 발생 후 전국에서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미련이나마 나의 힘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 주변 친구들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던 차에 우리 국회에서도 그곳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몇의 선배, 후배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였다.

2007년 12월 26일

오전 6시 40분까지 국기계양대에 모여 지정 차량에 탑승해야 했는데, 이날 총 10대의 버스가 자원봉사자를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나는 그중 버스 7에 탑승하게 되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너무 이른 출발시간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왔을 사람들을 위해 김밥과 물 등이 지급되었는데 김밥을 받아들고 버스에 앉아 있으려니 마치 소풍을 나서는 듯한 기분도 잠시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뭔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도 이미 자원봉사를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 듣게 된 얘기들, '실제 가 보니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일하니 정말 힘들더라' 내지는 '바닷바람 때문에 정말 추웠다' 또 '원유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라는 등등

## going to *Tae'an*

의 얘기를 미리 들었던 터라 그렇기도 했을 것이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개목항.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 도착한 곳이다.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생각 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꽤 여러 시간이 걸렸다.

버스에서 내려서자 바로 코끝을 스치는 진한 원유냄새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들른 주유소에서 나



던 석유냄새보다 훨씬 강도가 짙은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에 기름띠도 군데군데 보였고 바다를 둘러싼 바위들도 거의 모두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딱 보기에 TV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 주던 자료화면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 보였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각각 지급받은 마스크며 고무장갑, 면장갑, 장화, 방제복 등을 착용하고 아직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곳으로 안내되어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바위를 뒤덮은 검은 기름을 먼 등으로 닦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었는데, 쭈그리고 앉아 검은 바위를 닦고 있으려니 너무 속상하여 눈물이 나려 했다. 아마 태안을 다녀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한편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던 것이, 다행히도 우리가 봉사를 나선 날은 이상고온 현상을 보여 날씨가 매우 따뜻하여 작업하기

에 부담이 없는 날씨였다. 하도 춥다는 말을 많이 들어 겹겹이 최대한으로 끼입고 갔던 나는 너무 더워 털모자도, 겹옷도 다 벗어 버리고 일해야 했다. 차에서 나눠 주었던 핫팩은 개봉조차 할 필요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여러 겹 끼입은 옷 덕분에 오히려 땀까지 흘리며 작업하던 나는 '여기 누가 춥다 그랬어?' 를 연발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기름을 닦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다. 여러 조로 나눠 차례대로 서울에서부터 마련해 왔다는 설렁탕으로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는데, 오후에는 오전에 했던 곳보다 훨씬 더 사람 손길이 미치지 못해 더욱 심하다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정말 이곳은 더욱 심해 말이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바위마다 시커멓고, 잔돌들을 들어올리면 모래와 자갈들 틈 사이에서 원유가 마구 스며 나왔다. 바위와는 달리 그 작은 알갱이인 모래를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래를 무작정 다 퍼 닦을 수도 없고 정말 난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봉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어이없어 하는 농담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었어???' 라는…… 그 정도로 바닷가 바위 틈, 모래 틈에서 스며 나오는 원유의 양은 정말 생각보다 많았다. 마치 원유가 샘솟기라도 하듯이……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곧 물이 들어와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 going to *Tae'an*

말을 들은 우리들은 마음이 바빠져 더욱 재계 손길을 놓렸다. 오전부터 이곳에서 작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곳을 이대로 두고 곧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다. 시간을 되돌려 기름이 바다 위를 덮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우리가 작업했던 곳을 지나 다시 버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도 몇 번이나 되돌아보며 더 많은 바위를 닦지 못한 것을, 더 많은 모래를 씻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참 이른 시간에 출발한다 싶었는데 그 시간도 결코 이른 시간이 아니었다. 너무 빨리 끝나버린 작업에 정말 많이 아쉬웠다.

그런데 하나 위안이 되는 것은 처음 버스에서 내려 현장을 직접 대했을 때는 너무나 막막하여 작업을 해도 별로 도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편 사람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먼 곳에서 우리가 작업한 곳을 바라보니 우리가 모여 바위를 닦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확연한 색깔의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우리의 손길이 닿은 곳은 검은 색이 열어져 갈색 내지는 황색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작은 위로를 삼고 버스에 올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월까지 한 달여간 태안 기름 피해 지역의 생태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식물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이나 파래 등의 해조류는 평균 43% 감소했고, 잘피나 새우말 같은 해초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갑각류의 개체수도 급격히 줄었고, 지중해 담치와 쪽의 몸속에서는 벤젠 화합물과 구리, 카드뮴 같은 중금속까지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다. 갯벌 퇴적물 속에 있는 기름 성분의 농도도 사고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앞으로 5년 정도는 지나야 조개류가 돌아올 것이고, 10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회복의 뚜렷한 징후가 보일 것이란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이 사고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던 어민들의 자살과 절규……

과거 시프린스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빨라야 3~4년이 걸리고,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양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및 지원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특별법 통과는 유류오염사고 대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큰 틀을 마련한 것인바, 이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손해보전 지원, 해양환경 복원, 피해지역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야 합니다.”<sup>①</sup> 라는 문석호 의원의 발언처럼 하루빨리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 피해주민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걷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주. ① 참조: 2008년 4월호 국회보



going to *Tae'an*

## ◆ 덧붙이는 글

윗글을 필자가 쓸 당시는 2008년 4월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소 달라진 점이 있기에 아래의 글을 덧붙이는 바이다. (서울경제신문 2008. 07. 29. 참조)

지난해 12월 7일 검은 재앙을 맞았던 충남 태안에서 피서객과 바다가 함께 춤추는 축제가 열렸다. 10만 인파가 몰려 자연을 되찾은 태안의 기적을 기뻐하고 즐겼다.

백사장은 은빛 모래색을 되찾았고 개들도 돌아와 갯벌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바다에는 파란 물결이 넘실거린다. 8월 7일까지 계속된 이번 축제는 주민과 130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의 땀과 눈물이 이뤄낸 '기적'이다.

검은 원유가 바다와 백사장을 뒤덮었을 때만 해도 절망과 시름만이 가득했다. 원상회복에 최장 3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제기됐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처럼 8개월 만에 절망을 뛰어넘어 축제를 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관의 협력으로 '절망'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와 검은 재앙을 씻고 닦아내고 떠나고 사라 손 등 국민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 같은 헌신적인 자원봉사는 세계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다. 사고현장 조사와 방제를 자문한 유엔환경계획기구(UNEP) 등 외국기관의 방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민의 자원봉사와 한국의 방제작업 전략 및 관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지난 8개월간의 방제작업으로 응급조치는 끝난 셈이지만 괴멸 직전까지 갔던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사고는 피해가 크고 오래 가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환경보호의 생활화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축제는 하되 재앙의 아픔과 기적을 일궈 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태안의 자원봉사 정신도 소중한 자산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 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에게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인수위로의 출장.

뉴스에서 보니 인수위라고 하면 행정부에서는 서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입법부 공무원인 우리에게 인수위란 행정부 사람들과는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먼저 2명이 인수위로 출장을 떠나고 난 뒤라 떠난 사람들이 잘하고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중간에 들려온 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과정이라고 했다. 먼저 간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나와는 조금무관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계장님으로부터 2명 더 지원을 나가는데 그 2명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잠깐의 명함과 함께 인수위라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정리되지 않은 곳에

# Business Trip

서의 일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다.

의사국장실에 인사를 가게 되었고, 국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눈여겨 볼 거라는 말씀, 맞는 말씀이다. 비록 우리는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 말씀을 새겨보니 어깨는 무거웠다.

며칠의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그곳에 나간 사람들이 무척 힘들어하나 보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오후에 바로 나가게 되었다. 두 달 동안 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챙겨야 할 짐들이 너무나 많았다. 바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 그렇게 해서 국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 삼청동에 위치한 금융연수원.

이곳이 앞으로 내가 두 달 동안 출근하게 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한 곳이다. 이곳에 가기 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시작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가 보니 그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던 2명은 우리를 너무나 반가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은 아직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인수위' 라는 이름만 있고 정돈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16대 때 인수위에 다녀왔던 선배의 말을 조금은 듣고 왔지만 그 말과는 또 다른 인상을 받았다. 이미 우리가 가기 전 오전 회의로 힘들었던 두 사람을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바쁠 뿐이었다. 우리 사무실도 없어서 아직 입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일단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인수위에서의 일을 시작했다.



갑자기 변경된 인수위 업무보고 장소로 급히 이동 중인 속기사들 (사진제공 : 뉴시스)

그동안 너무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국회라는, 의정기록과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곳에서의 첫 느낌은 강렬했다.

우리를 담당하는 사람과 우리는 처음부터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내가 국회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일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은 안다. 무조건 실시간으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의 시스템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중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하나 쳐 놓고 벽에 대고 얘기를 한다는 느낌일 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그 사람도 아마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를 과연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상대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속기사가 아닌 이상 속기라는 업무의 특징을 온전하게 이해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기계속기로 하면 수필속기로 하는 것보다 빨리 회의록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바로 회의록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거나 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우리 업무의 속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곳에서의 생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게다가 '노 홀리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해내야 할 과중한 업무량을 생각하면 앞으로 두 달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 것처럼 느껴져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를 보내 놓고 노심초사 하던 과에서 하루씩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인원

## Business Trip

보충을 더 하여 두 팀으로 만들어 주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렇게 2007년은 가고 새로운 2008년이 다가왔다.

2008년 1월 1일.

이미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주말의 출근이 예전 같았으면 짜증도 났겠지만 이곳 인수위 안에서는 모두 다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비록 지하 공간에서 머리까지 멍하게 만드는 가스난로로 시작했지만 작은 우리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그곳이 하루하루 바뀌어 가면서 우리에게도 여유라는 것이 생겼다.

모든 일은 적응하기 마련이었는데 그곳에서는 그 말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의 일들이 계속 생겨났다. 일에 익숙해질 즈음 삼청동 금융연수원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주차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우리에게, 더군다나 멀리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암울한 소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이 찾은 주차 공간도 매일 아침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자주 주차금지 공간이 되어 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새벽에 나오는데 제발 주차 문제라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두 달간 살아갔던 것 같다.

그리고 터진 보안 문제.

그곳에서 우리가 다루는 회의 자료는 거의 모든 것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기밀자료였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언론에 있어서 민감하고 이슈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터지는 보안 문제로 우리들은

또 한번 힘들어졌다. 매일 쓰는 usb를 익숙하지 않은 보안 usb로 바꾸고, 매일 출입하는 회의장에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체크가 되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주말의 삼청동은 그야말로 나들이 나온 연인들, 관광객들, 가족들로 붐비었다. 그런 곳을 지날 때면 '나도 저렇게 이곳에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부럽기만 하였다. 사람들이 "삼청동, 삼청동" 할 때는 한번쯤 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에게 처음 가 본 삼청동의 이미지는 아마도 인수위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것 같다.

1월도 거의 다 가고 2월 설에는 과연 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즈음 들려온 소식은 설 당일에만 쉰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우리 팀에는 저 멀리 마산, 전남 고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루만 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소박한 꿈을 꾸었다. 5일 연휴 중에 이틀만 쉬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쉬라고 있는 5일의 연휴건만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틀을 설 수 있다는 말에 떨 듯이 기뻐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를 생각하니 사람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된다.

인수위 기간이 대통령 취임까지라고 하지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설 전에 돌려보낸다는 말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겠지, 나름 위안을 삼아 보았다.

인수위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삼청동이라는 곳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나갔다. 인터넷을 뒤져 점심시간에 가 본 맛집들, 그러나 여의도가 더 맛있다는 우리들의 공통된

## Business Trip

의견들. 그러면서 또다시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같이 나온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 동료애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매일 회의를 하면서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며 재촉하는 중에 회의장에서 속기해 온 것을 검토도 없이 보낸 적도 있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보다는 속기록의 빠른 전송이 중요하다는 말에 바로 전송해 버리는, 국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속출하였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완벽한 회의록이 아닌 내용 파악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그 시스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수위에서의 시간이 나에게 앞으로 삶을 살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조금은 힘들고 또 조금은 낯설었지만 그곳이 내게 준 선물은 힘든 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좋은 동료들이었고, 또 나태해질 수 있는 내 삶에 있어 새로운 곳에서의 활력 충전이 되도록 해 준 것이었다.

국회에 돌아가서는 또 어떻게 적응할까 하는 약간의 걱정을 했었는데 벌써 인수위 다녀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속기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만날 수 있었고 또 TV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도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본다.

새로운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줬던 인수위에서의 생활과 또 무엇보다 두 달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배·동료들이 내게 남은 큰 자산인 것 같아 너무 고맙다.



# 경기도 속기사 현황

| 이현숙 |

## ▶ 경기도의 유래

경기도는 동북아시아에 길게 뻗은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이며 면적은 전국토의 약 10%인 10,184km<sup>2</sup>이며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에, 서쪽으로는 332km의 해안선에 접해 있다

본래 '京'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畿'는 '천자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 이내의 땅'을 의미한다.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 하였던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경기는 1069년(고려 문종 23)때 확대되었던 영역과 비슷한 규모로 재편되어 총 44현을 통할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도 단위의 지방조직으로 변모하였다. 당시의 경기는 左道·右道로 나누어 통치되었다.

조선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경기의 영역을 원근에 따라 재조정하였다. 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좌·우도를 합하여 다시 경기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수안·곡주·연안 등 이전 경기의 서북지역은 풍해도(豊海道·황해도)로 속하고, 광주(廣州)·수원·여주·안성을 비롯한 동남지역이 경기로 이속되는 등 대체로 현 경기도 관내와 일치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창업과 한양 천도는 경기도의 윤곽을 오늘날과 유사하게 결정짓는 계기였다.



경기도 광역 및 기초의회 현황

2008. 6. 기준

시군명	의정수 (비례)	정례회수 (문용)	속기사 현황	정신회 현황	기계속기 사용명	아르바이트 및 예산집행현황
경기도	119(11)	9(1)	19	2000	카스(속기·번문용)	출산휴가 시 출산대체인부임 1일 35,000원
수원시	36(4)	4(1)	4	1999	소리자바(번문용)	행정사무감사 일용인부노임단가×35일
성남시	36(4)	4(1)	6	2001	소리자바(번문용)	2차 정례회 일용인부노임단가×회의일수×3
고양시	31(4)	4(1)	4	1997	카스(속기·번문용)	2차 정례회의 회의시간당 10만 원연, 200만 원
부천시	30(3)	3(1)	3	2004	카스(속기·번문용)	2차 정례회의 물가정보(교정새노임단가×회의일수×3
용인시	20(2)	2(1)	2	1999	소리자바(속기·번문용)	*
안산시	22(3)	3(1)	3	2000	카스(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일용인부노임단가×36일
안양시	24(2)	3(1)	4	1999	김유태/카스(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물가정보지기준 노임단가×35일
남양주시	14(2)	2(1)	3	2001	카스(속기·번문용)	*
의정부시	13(2)	2(1)	2	2001	카스(속기·번문용)	*
평택시	16(2)	2(1)	4	2001	소리자바/카스(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일용인부노임단가×회의일수
시흥시	13(2)	2(1)	3	구축	카스(속기·번문용)	정례회 일용인부노임단가×회의일수×2
화성시	11(2)	2(1)	2	1999	소리자바(속기·번문용)	정례회 일용인부노임단가×20일
광명시	13(2)	2(1)	3	2000	*	*
파주시	10(1)	2(1)	3	2004	카스(속기·번문용)	출산휴가 시 일용인부노임단가
군포시	9(1)	*	2	2001	카스(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일용인부노임단가×25일
광주시	8(1)	2	2	2002	*	*
김포시	8(1)	*	2	2004	카스(속기·번문용)	2차 정례회 의일용인부노임단가×70~80일
이천시	9(1)	2(1)	3	2004	카스(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출산휴가 시 1일 167,000원
구리시	7(1)	*	2	2001	카스(속기·번문용)	*
양주시	7(1)	*	1	구축	카스(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 일용인부노임단가
안성시	9(1)	2(1)	3	2002	카스(속기·번문용)	출산휴가 시 일용인부노임단가
포천시	8(1)	2(1)	2	2000	카스(속기·번문용)	*
오산시	7(1)	*	2	2003	소리자바/카스(속기·번문용)	*
하남시	7(1)	*	2	2005	소리자바(속기·번문용)	*
익산시	7(1)	*	1	2002	*	행정사무감사 일용인부노임단가×20일
여주군	7(1)	*	2	2001	*	*
동두천시	7(1)	*	1	1995	헤크덕(속기·번문용)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48,500원×일수
양평군	7(1)	*	1	2002	소리자바(속기·번문용)	*
과천시	7(1)	*	2	1999	*	*
가평군	6(1)	*	0	*	*	*
연천군	7(1)	*	1	2000	카스(속기·번문용)	1·2차 정례회 40,000원×일수



## ▶ 속기사 현황 및 승진소요연수, 직급현황

경기도는 광역의회인 경기도 의회와 31개 시·군으로 현재 도의회 19명과 30개 기초의회 75명으로 도내 94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으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음에도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말은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그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 의회의 속기사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구분 \ 근속연수	15년 이상	15년 미만~10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5년 미만
계	35명	33명	12명	14명
경기도의회	7명	7명	5명	*
30개 시·군	28명	26명	7명	14명

10년 이상 근무한 속기사가 68명으로 7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에 반해 직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구분 \ 직급	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계	5명	31명	32명	14명	12명
경기도의회	3명	9명	7명	*	*
30개 시·군	2명	22명	25명	14명	12명

승진 소요연수는 기능10급에서 기능9급 1년 6개월 ~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 2년 ~ 8년 1개월, 기능8급에서 기능7급 3년 ~ 8년, 기능7급에서 기능6급 4년 4개월 ~ 7년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의회와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의회는 9급으로 채용, 7급까지는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되면 자동 승진되고 있는 반면, 시·군 의회는 근속승진이 주를 이루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직급이 낮고 임용 시에도 기능10급으로 채용하는 시·군이 많아 이중 삼중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며,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승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직으로 전직한 속기사의 수가 경기도 내에 23명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 속기사의 업무 및 애로사항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속기사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회의시작 전 회의서류 배부를 시작으로 회의 속기, 번문, 편집, 교정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등재 후 회의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인쇄소에 의존하지 않고 제본하여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회의 중 녹음은 물론이러니와 녹음테이프의 보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번문과 편집, 교정을 위한 사무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중력이 발휘되지 못하여 회의록 작성이 지연되고 있고, 시·군의 각종 위원회 회의 투입, 의회의 각종 행사지원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제5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가 자리매김함에 따라 업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속기사들의 업무증가와 직결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 현황을 보면 1명의 속기사가 1개 시·군 의회, 또는 1개 상임위원회를 혼자 담당하고 있어 12시간 이상 혼자 속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과로, 관절 이상, 디스크, 어깨통증 등 직업병으로 인해 휴직 상태이거나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수단에 의존하며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속기사의 충원과 함께 영구보존 문서인 회의록 발간의 중요성을 감안, 편집 인력의 확보도 요구되나, 각 시·군 공히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어지지 않고 있어 대안으로 회의 양이 많은 정례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 시·군별 편차가 크고 낮은 임금으로 인력확보도 순조롭지 않아 그에 따른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발전방향

의회 안에서 속기사의 역할과 업무의 비중을 본다면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업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 내 31개 의회 속기사들은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일조하고 있으며 보다 빠른 회의록 제공을 위해 현재 27개 의회에서는 컴퓨터속기를 습득하여 회의록 제공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고 있다. (임용 당시 자격증 현황: 한글속기 62명, 컴퓨터속기 32명)

의회 속기사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속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겠지만 스스로 인정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번 자료조사를 통해 향후 각 지방의회 속기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적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와 타 의회와 연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경기도의회 및 31개 시·군 의회 속기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Album

## 추|억|의 앨범



###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

6·25전쟁으로 인해 국회사무처가 부산에 있었을 당시의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국회 속기사양성소 전신) 제1회 졸업기념사진입니다.

작고하신 신익희 전 의장님(앞줄 좌측 네 번째)을 비롯한 속기계의 큰 별이셨던 정원도(둘째줄 좌측 첫 번째)·김진기(둘째줄 우측 첫 번째) 선생님도 계시네요. 귀중한 사진을 보내 주신 정운 님(셋째줄 좌측 첫 번째)께 감사드립니다.

# 첫 세.미.나

| 김나영 |



■ ■ ■  
2007년 6월, 불과 1년 전만 해도 독서실과 학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던 제가 속기협회 회원의 자격으로, 그것도 선발대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드디어 얘기로만 전해 들던 속기협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슴 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 ■ ■  
사업부장님을 필두로 한 선발대는 회원 여러분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 나름대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학술세미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던 여러 선배님을 옆에서 보



아 왔던 터라 선발대로 출발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 ■

6월 8일, 2007년 속기협회 학술세미나가 개최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학술세미나에 걸맞은 알찬 강의도 빠질 수 없겠지요? 제1 주제인 국민대학교 강  
장석 교수님의 '주변 4강의 역할 - 한반도 통일 우리의 의지대로 될 것인가' 와 제2  
주제인 최민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님의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키포인트' 로 진  
행된 주제발표 시간은 바쁜 시간을 내  
어 먼 길 오신 회원들 마음을 가득 채우  
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딱  
딱할 수 있는 주제였는데 두 분 모두  
유쾌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 ■ ■

같은 곳에 발 담고 있는 '우리' 기에 잘 통할 수밖에 없었던 레크리에이션 시간  
은 가히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 게임' 부터 조별  
노래자랑까지,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세대도 허물  
어진 하나 된 우리였습니다. 단 한 가지, 어찌다 보  
니 저도 조 대표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 그 순간을 악몽으로 떠올릴 정도로 저에게는 지  
우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합  
니다마는..... ^^;;



■ ■ ■

숙소로 돌아와서도 수안보의 길고 긴 밤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주 배달 서비스' 수고까지 불사하며 온 몸을 불사른 본부요원들,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귀하게 느껴지네요.

다음날 아침, 충주호 유람선을 타는 것으로 2007년 속기협회 학술세미나의 일정은 마무리되고 우리는 다음을 기약합니다.

■ ■ ■

여러분은 2007년 학술세미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처음으로 참가한 속기협회 학술세미나는 저에게 첫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었고, 둘째 선배님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천한 나의 속기 사랑





에 한없는 자극을 받게 하였으며, 셋째 '이곳이 내가 뼈를 묻을 곳이구나' 하는 단단한 소속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작게는 속기사로서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했고 크게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사회인으로서의 바로미터로 삼을 만한 기회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권도 바뀌고 새로운 국회의원도 뽑힌 특별한 해입니다. 일의 특성상 이 모든 것이 우리 속기인에게는 예민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래서 어찌면 더 힘들 수도 있겠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 ■ ■  
하지만 2008년 학술세미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 보면 어떨까 합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 사정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

■ ■ ■  
올해도 어김없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기인의 잔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실 대한속기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만간 있을 우리들만의 축제를 기대와 응원의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긍정의 힘으로 9988 123

| 정 란 |

갑자기 주제도 없이 몇 자 급하게 쓰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리저리 녹슨 머릿속을 뒤져보니 단편적인 아이템은 몇 개 떠오르건만 그뿐, 더 이상 진전은 없다. 예라, 주제가 없었으니 나도 주제 없이 쓰겠다고 배짱 좋게 생각하곤 자판 위에 손을 얹었지만 그도 그뿐……이 이득함을 어찌하라.

한때 글 쓰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때 내게 글 쓰는 일들이 주어졌었다면 지금 느끼는 이 이득함은 덜할까?

글 쓰는 기술은 물론 터득했겠지, 하지만 글의 내용과 깊이는 혹 기술이라는 매너리즘에 묻혀 생기를 잃지는 않았을까? 자위해 보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도통 글이라곤 써보지 않던 내가 그때의 나보다 더 생기 있는 글을 쓸 거라고 호기를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나이의 감수성이란 놈은 손가락 사이에서 호물해진 초콜릿 같아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터에 생기까지 운운하는 건 암만 머리보다 손가락이 먼저 자판을 두드렸다 해도 너무 심했다.

11대에 입사했으나 국회의원으로 치면 8선의 초입에 드디어 마침내 승진이란 숙제를 끝냈다. 혹자는 소원 성취했다고들 하더라만 그분께는 미안하지만 또 다른 혹자가 얘기한 미웠던 숙제를 한 기분이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 왜? 인생은 숙제의 연속이고 승진을 했건 못 했건 사는 동안 숙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 하니까. '각자에겐 다 다른 숙제가 있을 뿐' 이라고 쓰다가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숙제는 마지못해 하는 것, 즉 타의에 의한 것이고 소원은 자기가 원해서 이루어내는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는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썼어야만 했다. 적어도 내가 긍정적인 인간이란 걸 입증하려면. 뭐,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이분법적으로 가를 것까지 있겠나시겠지만 이번만큼은 긍정적이지 못했다고 깨끗이 인정해야겠다. ㅎㅎ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고 호들갑을 떨었기도 했고.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유럽 몇 나라를 여행한 일이 있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훑었는데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무릎을 쳤더랬다. 바로 그 현지 가이드들과 사진을 찍어 오지 않았다는 것.

내가 만나본 현지 가이드들은 적어도 영국 가이드는 영국스러웠고(버버리코트를 입은 언행이 적절한 신사) 프랑스 가이드는 프랑스스러웠고(늙아서 소맷부리가 희뿌연 김정 가죽점퍼가 궁색해보이기는커녕 자기 피부인양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던 남자) 독일가이드는 독일스러웠는데(가이드답지 않게 그 남자는 진짜 필요한 말만 절도 있게 했다) 거기다 이태리가이드는 또 이태리다웠다는 걸(얼



기실기 큰 얼굴에 엄색에 아줌마뻘글이파마에 머리띠까지 하고 여자 좋아한다는 등 너스레를 엄청 잘 떨었던 정말 내 취향 아닌 남자) 나중해야 알았다. 그래서 다음엔 반드시 가이드들과 사진을 찍어 오겠다고 다짐했었다.

이번에 신입관리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역시 유럽 해외 연수 기회가 있었는데 과연 가이드들과 찍어 왔느냐고요?

실수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었나? 게으른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기는 고무신 신고 발레하기보다 어렵다? 결과적으로 실수는 되풀이 되었고 고무신 신고 멋지게 발레를 추진 못 했다.

현지 가이드들은 그 나라에서 적게는 10여 년 많게는 20여 년을 지낸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이미지를 풍긴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역시 환경의 영향은 무서운 것이란 걸 또 한번 입증하는 케이스로 써도 무방할 듯 싶다.

나 역시 근 30년 가까운 세월을 국회에서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내가 근무하는 이곳에서만 말이다.

나 역시 그 가이드들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을진대

지금 내가 속한 이 곳 이 자리의

환경은 과연 어떠했으며

지금 어떠하며

앞으로 어떠할 것이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할 것이 있다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타성, 게으름, 패배주의, 자기 비하, 피해의식, 매너리즘 등 부정적 사고방식들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는 하는지.

앞에 썼던 이 나이의 감수성은 흐물해진 초콜릿 같단 말도 틀렸다. 나이가 주는 선입견 땀에 부러, 지레 그렇게 엄살을 떠는 건 검양도 뭐도 아니다. 형체가 흐물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색깔이 다를 뿐인 것이다. 젊은 날의 감수성이 진한 원색이라면 이 나이의 감수성은 연한 파스텔톤인 것을. 때에 따라 형체는 오히려 더욱 또렷해질 수도 있거늘.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조강지처클럽'의 한원수의 대사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결코 오늘 생각하지 않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히라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일 벌어질 일을 예단해서 불필요하게 미리 걱정하고 안달복달 전전긍긍하지 말자.

한번쯤은 나와 내 가족을 벗어나 주변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부서를 벗어나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둘러보면서 오늘의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느긋하게 살다 보면, 해야 할 숙제도 하고 크고 작은 소원도 이뤄가면서 99세까지 88하게, 하루 이틀 앓다가 셋째 날에 죽는 행운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지면을 얻은 김에 나의 좌우명 한마디.

"국회는 회의체고 회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록이다"

물론 회의록만이 국회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란 걸 아시겠지요? 찌찌, 이 노파심을 어찌 긍정적으로 바라보나?

# 속기사로 거.듭.나.기

| 손선락 |



2007년 6월, 국회속기직 합격이라는 낭보가 나에게도 전해졌다. 그동안 내 속을 짓누르고 있던 체중이 썩은 듯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서른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저 남의 나라 얘기인양 보고 들던 게 고작이었던 국회가 이제是我的 직장인다고 생각하니 약간은 설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국회속기사를 목표로 속기를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대학 4학년 때이던가, 책자를 통해 국회속기사란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직업에 매력을 느껴 속기라는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언젠가는 국회속기사로 일하리라는 그 신념뿐이었다.

1999년 10월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나는 그 이후 여건이 좋지 않아 5년여의 시간을 회사에서 사무직 근무를 하였고 다시 2년여의 시간을 법원 속기사로 생활을 했다.

법원을 다니면서 국회 시험을 준비했는데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끝나면 일절 약속을 잡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새벽 2시까지 책과 씨름하고 다시 새벽 6시에 일어나 책을 보고…… 전 해 시험에서 낙방한 경험이 있었기에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여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이듬해 나는 국회로 입성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돌아해보면 국회 시험을 준비했던 그 기간은 나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어느새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늦게나마 나는 그 길목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결실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공부에 매진하라고 많은 배려를 해 준 법원 속기사 언니들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고, 자식이 하는 일을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부모님의 애정 어린 시선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애정 속에 나는 국회속기사로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국회는 참으로 낯선 곳이었다. 법원과도 사뭇 다른 점이 많았다. 아니 모든 면에서 많이 달랐다. 법원에서의 속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문답 방식의 신문조사 형식으로 속기록이 나왔다면 국회에서의 속기는 후배 속기사, 선배 속기사, 편집 담당을 거치는 일련의 물 속에 하나의 원고가 완성됐다.

10분 내지 15분 분량의 원고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한 명 한 명의 선후배들이 국어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회의록작성편람·헌법·국회관계법·인터넷 등 여러 회의 관련 자료를 들추어가며 그 몇 배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원고가 빛을 볼 수 있었다.

원고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숨 돌릴 겨를도 없을 만큼 분주히 움직여야만 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내 자신은 한없이 쪼그

라들고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구두점 하나, 띄어쓰기 하나에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어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 주무 선배님을 보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뿌듯함마저도 느껴졌다.

물론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 '뿌듯함'이란 단어를 쓰기에는 다소 건방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에서의 나의 첫 원고는 그야말로 실수투성이였기 때문이다. 나의 첫 원고는 나의 청취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고, 나의 문법적인 지식의 알량함을 그대로 보여 주기에 충분하였다.

음성언어를 문자화시키고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옮겨 주는 속기라는 일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구두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해도 전혀 다른 뜻이 되어 버리는 우리말의 특성상 문법적인 지식은 속기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모자람이 많았던 나는 원고를 받아 보는 순간순간이 실망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여지없이 선배 속기사의 눈에는 허점투성이 원고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나 역시 원고를 보며 많은 부분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모자란 부분을 매워 주는 주무 선배님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다.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발언자 체크였다. 회의록에 있어서 발언자 체크의 중요성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나 소회의가 있는 날에는 그 전날부터 가슴이 팍 것눌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따로 녹음을 한다고는 하지만 명패도 없고 마이크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발언자를 체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정부부처 직원들이 발언을 할 때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힐 지경이었다.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울컥울컥 가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하였다.

내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며 어수룩하게 있을 동안 옆 자리의 선배님은 침착하



게 속기를 하고 있었다. 발인자 체크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오청을 하는 부분까지도 다 제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후배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선배들이 일일이 채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경이롭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원고 하나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선후배의 관계 역시 다듬어지고 있었다. 후배의 입장에서는 마냥 어렵기만 한 선배이지만 하루하루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정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모습의 선배들로부터 내가 배워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역량도 길러야 했다. 후일에 어엿한 선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나름의 준비 과정일 것이다.

그렇게 지내기를 6개월,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임시회와 정기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여유 있게 흐르는 시간과 달리 나 자신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지내온 것 같다. 원고가 조금이라도 쌓일 것 같으면 원고를 빨리 넘겨야겠다는 생각에 특근을 반복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신입직원들은 한 번쯤 겪게 되는 통과외레일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 확실한 모범답안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훌륭한 선배들처럼 10년 20년 후에 국회속기사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난 여전히 많은 부분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꾸준한 수련이 필요할 것이다.

후배의 모자란 점을 항상 옆에서 채워 주는 선배님이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낼 동기들이 옆에 있기에 앞으로의 생활은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비상하기 위해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새들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또 다른 시작

| 신동선 |



### 시작.

2008년 새해가 찾아왔다. 되돌아보면 2007년 한 해 내게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원초적인 고민을 시작으로 우여곡절을 거쳐 합격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지루했던 방향을 접고 그저 남의 얘기로만 줄곧 생각했던 이곳 국회의 속기사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지금도 합격했던 순간이 꿈인 것만 같고 매일 출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현실일까라는 착각도 든다.

### 속기사를 꿈꾸며.

가끔 누가 어떻게 속기를 시작하게 됐냐고 물으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학원에 찾아가서 등록하던 그 순간밖에 기억나질 않는다. 누가 속기에 대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었고 국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학원을 등록하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뭔지는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점점 속기사에 대한 꿈을 키워 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만 같았다.

### 방향 그리고 다시 맺어진 속기와의 인연.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 더 이상 속기를 배울 여유가 없었고 다른 생활들이 속기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렇게 속기는 내게서 잊혀져 갔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생활에 익숙해져 갈 즈음 나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들고 있었다. '정말이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진정 내가 원하던 곳이었나?', 생각했던 대학생생활과는 모든 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이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바에야 휴학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때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 건 속기.

인연이란 이런 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격증을 따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서울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속기의 길을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 자신(自信)과 자만(自慢)의 차이.

그렇게 시간이 가고 2005년 6월 1·2급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워낙에 소심한 성격이라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정말 누가 볼까 창피할 정도로 떨렸다. 그 5분 안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마음을 다잡는 게 어찌나 힘들었던지…… 시험이 끝난 후 떨어진 것만 같았고 1년의 휴학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싶어 우울했다. 게다가 시험감독을 하시던 분이 나를 보고는 "자네는 2%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 정말 떨어졌구나.

드디어 자격증 합격자 발표하는 날, 떨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밤 12시임에도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우고야 말았다. 스스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쓸데없이 마음고생한 게 억울하긴 했지만 합격한 마음에 기분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자격증을 딴 후 나는 더 이상 학교생활에 미련이 남지 않았다. 결국 학교

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서야 반드시 국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다짐을 한 얼마 후, 2006년에 13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다.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했을까 아니면 13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 보였을까. 자격증을 준비하던 때에 열심히던 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공부는 뒤로 하고 그저 집에서 한심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게다가 2006년 5월 월드컵이 나를 속기가 아닌 축구에 빠져 들게 만들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 하다 결국 13명이나 뽑는다는 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당분간 채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 또한 그만두었고 지금까지 나의 직업에 대해서 속기사 이외에는 생각해 보지 않은 터라 이제는 무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혼란스러웠다. 정말 끝인 것만 같았다.

#### 고민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7년 4명, 더 불리해진 상황이었다. 그동안에 내가 왜 속기를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도 많이 들었다. 그만두었던 학업에 대한 미련이 남기도 했었고 생각만큼 좋은 자리가 많이 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속기를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웠다.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깨끗하게 속기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늦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다시 한번 믿기로 했다.

어느덧 5월이 되고 시험을 치르고 난 며칠 뒤, 집 근처 도서관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가뜩이나 요즘 자꾸 광고 전화에 잘못 걸린 전화도 많아서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 아쉬우면 또 전화하겠지. 한 번 더 오면 그때 받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조금 후에 한 번 더 진동이 울렸다. '누구야! 광고기만 해.' 거의 짜증 반 의심 반으로 세 번 만에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상대방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건 "여기 국회인데요." 정말 내가 미쳤지…… 국회에서

실기시험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보는 전화였던 것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다. 그냥 좋았다. 이런 기분이구나! 말로만 듣던 합격의 순간.

그 후로 나는 2주 동안 피가 마르는 실기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최종합격자 4명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 또 다른 시작.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국회에 출근한 지도 이제 6개월이 넘어섰다. 아침마다 저기 보이는 건물로 내가 출근을 하다니, 아직도 꿈만 같은 게 사실이다. 면접을 보러 오던 날 본청 출입문을 찾을 줄도 몰라서 헤매던 내가 이제 길을 묻는 누군가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다. 그만큼 나도 서서히 국회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끔 길조차 몰랐던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다. 그만큼 처음이란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만 뜻뜻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격을 하니 지난 1년, 아니 지난 4년 동안 속기로 인해 울고 웃었던 세월이 보상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합격자 발표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만 같았던 순간 이곳은 나에게 그간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는 채찍질을 씬 없이 하고 있다. 많은 경력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같이 속기를 공부하던 동료들에게 가끔 연락이 온다, 국회가 얼마나 좋으냐고, 그럴 때마다 돌이켜 본다. 과연 면접 때 노력하는 속기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큰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던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렇게 원하던 국회 속기사인데 서서히 익숙해지며 처음의 마음가짐을 잃어 가는 건 아닐지,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 거북이걸음으로 국회에 오다

| 이은영 |



누군가 나를 보고 거북이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느리지만 오래 살 수 있는 동물 아닌가. 사실 내가 국회시험에 났다고 했을 때 가족들도 '저 느린 걸음으로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무척 의아해 했으니까. \*^^\*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얘기를 하겠다. 솔직히 글 쓰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나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 선배들의 글을 보며 많은 힘을 얻었고 누군가도 그런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번 써 보는 거다.

2003년 겨울, 11월에 회사를 나왔다. 솔직히 말하면 자의는 아니었지만 회사에 남아 봐야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상사가 오고 나서 일이 몇 배는 많아져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담배를 다시 피웠고 직원들

휴가도 못 가게 하고 회식자리에서는 꼭 여직원들 보고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시키는 등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힘없는 계약직원들을 자기 손으로 자를 수 있다는 것에 무척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그냥 내가 포기하기로 했다. 나 말고도 잘린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직장을 나왔다.

정확히 일주일 쉬고 속기학원에 등록을 했다.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다음해 여름 2급을 따기까지 학원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연습만 했다. 그리고 겨울에 1급을 땀으니 1년 만에 자격증을 손에 쥔 것이다. 솔직히 자격증을 따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취업이 안 되는 거였다. 면접을 보러 가면 속기경력이 없어서 안 되고 조직에 어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졌다. 남들은 자격증을 어렵게 따더라도 취직이 쉽게 되던데 나는 오히려 자격증보다 취업이 더 어려워져 6개월 동안 집에서 쉬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법원에 들어갔는데 현실은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법원에서 속기사에 대한 대우나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 내가 일만 하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것, 계약직으로 차별받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 2006년에 공고가 났다. 그것도 평소보다 몇 배 많은 13명을 뽑는다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 시간이 촉박한 데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절망을 해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 후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1년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시험도 떨어져서 속상한데 운전연습 한다고 왔다갔다 하다가 다쳐서 몸도 아프고

괜찮아질 만하면 또 다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기도 벅차고…… 앓튼 끝도 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고 안 좋은 일은 다 겪은 것 같다. 내년엔 시험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매일 고민과 걱정엔 아침에 눈뜨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2006년 겨울에 공고가 또 났다. 시험 보는 날짜도 당겨져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기간을 짧게 잡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히 가졌다. 아무리 서두르고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편안하게 갖기로 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서 그랬는지 2007년에는 보는 시험마다 붙었다. 20명이 보면 거의 다 붙고 1-2명 떨어진다는 면허시험에서 떨어진 게 나왔는데 2007년에는 면허시험에도 붙고 다른 자격증 시험도 났고 심지어 라디오에 '즉석신청곡'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그것도 당첨돼서 노래듣고 선물도 받고 국회 필기시험, 실기시험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고 났는데 그렇게 빨리 출근하라고 할지 몰랐다. 일주일인가 후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해서 교육받고 과에 배치되어 정기국회, 국정감사, 임시국회, 대통령직인수위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6개월이 지나갔다.

나도 밖에 있을 때는 국회에 다니면 일찍 끝나고 여유로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정말 천만, 만만의 착각이었다. 회의도 한 개만 열리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열리는 데다 회의가 끝나면 언제 회의록이 나오는지 전화도 많이 오고 일은 왜 그렇게 산더미처럼 많은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동기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이 제일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다. 그것도 바쁘지 않았을 때 얘기지만……



예전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며 나도 잘 써서 내야지 했는데 솔직히 내려고 보니 무척 쑥스럽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나는 국회에 들어왔고 지금은 일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나에게 지금까지 잘 가르쳐 주시고 느려도 봐주신 주무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

속기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혹시라도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도 힘들었을 때 이 말을 잊지 않았다. "열심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기.



# 의원님, 고칠 게 있습니다

| 이경숙 |



“1990년 6월 18일, 150회 임시국회가 개최됐지만 여야 간의 참여한 대립이 거듭되었다. 임시국회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방송구조 관련 3개 법안, 광주보상법 등의 정치쟁점법안과 약 2조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3당 합당 이후 처음 개최된 국회는 거대 여당 민자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의석수만 믿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를 그대로 드러냈다.

개회 초반부터 야당은 서울시의 예산전용문제를 물고 늘어졌으나 강영훈 총리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야당은 강 총리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처음부터 여야가 격돌했다.

7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는데 민자당은 다수의 횡포

를 발취해 파행을 거듭했다. 결국 문공위와 국방위, 예산결산위는 민자당이 다수로 밀어붙여 통과되었고 법사위는 활동시한에 몰리자 박준규 국회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7월 14일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었다. 야당은 여당의 기습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가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 하지만 민자당은 박준규 의장 대신에 김재광 부의장을 이용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김재광 의원은 200여 명의 민자당 의원에 둘러싸인 채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1분 만에 법안의 통과를 선언하고 도망치듯 회의를 빠져나갔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13대 국회를 반민주악법을 양산하는 통범부라고 비난했고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상이 '대한민국 50년사II' 라는 책에 묘사되어 있는 7월 14일을 전후한 정치적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도도하고도 역동적인 정치상황을 알 리 없는 입사 75일차의 아직 시보도 못 댄 완전 신참 속기사였다. 더구나 그 해에는 회의가 계속 공전되어 나는 그날까지 본회의장을 두어 번 밖에는 못 들어가 본 상태였다.

1990년 7월 14일 오전, 나는 주무님과 그리고 다른 선배님 짬과 함께 '루루라라' 본회의 첫 짬으로 대기를 하러 내려갔다. 당연히 나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상황을 알 턱이 없었고 첫 대기조인 우리들 네 명은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이런 저런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언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장 속기석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갔을 때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영 심상치 않아 보였다. 이미 많은 의원들(그때는 잘 몰랐지만 당시 평민당 의원들이) 의장석과 단상, 발언대 등을 점거했고 또 속기석 주위에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의원들로 인의 장막이 쳐진 상태였다. 당연히 의석 쪽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저쪽에서 서로 맞받아치는 고함소리 때문에 회의장 안은 상당히 소란스러웠다. 나는 좀 걱정되기는



했으나 '뭐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하는 생각에 그다지 긴장하지는 않았다, 그때까지는.

의원들 중에는 간혹 선배님들과 한두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분도 계셨고 나는 큰 걱정 없이 '000 의원은 생각보다 키가 작네' '△△△ 의원은 화면이 낮다' 등등의 생각을 하며 인의 장막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구경하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의석 가운데 통로 끝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고향소리로 이어지다가 싶더니 속기석을 둘러싸고 있던 의원들이 갑자기 통로 쪽으로 마구 뛰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그들을 막는 여당 의원들과 뒤엉켰고 회의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뛰야' '뛰야' 를 연발하며 의자에서 엉거주춤 일어선 채로 통로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일단의 의원들이 다시 우르르 우리들에게 몰려왔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는데 몰려온 의원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뭐 들은 게 있느냐' 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정말, 정말 우리는 아무 것도 들은 게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어정쩡하게 '못 들었는데요……' 라며 말끝을 흐렸다.

두근거림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그때 이철용 의원이라고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의원이 계셨는데 그분이 훌쩍 속기석으로 뛰어내려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주무님께 속기노트를 한 장 뜯어달라고 하더니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선배님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선배님들의 얼굴에서 당황해하는 표정이 스쳐지나가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두근거림이 점점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각서, 각서가 뭐였더라……'

각서라 함은……’ 나는 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엄청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머뭇거리자 이철용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빨리 각서를 써달라고 채근을 했고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며 나름 버티고 있었다. 이철용 의원은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여러분은 들은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등의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써달라고 재촉했다. ‘몇 월 며칠 몇 시, 우리는 아무 것도 들은 바 없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찢어진 속기노트에 속기 대신 각서를 썼고 의원은 각서의 내용 밑에 날짜와 직급, 이름 등을 적게 한 후 사인을 하도록 했다. 나도 맨 아래에다 ‘속기서기보 이경숙’이라고 썼다.

이철용 의원이 우리들이 쓴 각서를 받아 읽어보고 있을 때 ‘참, 나는 아직 시보인데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갔고 웬지 시보를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소심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이철용 의원에게 ‘의원님, 잠깐만요. 고칠 게 있습니다.’ 하고는 각서를 다시 받아 ‘속기서기보’와 ‘이경숙’ 사이에 갈매기 표시를 한 후 ‘시보’자를 써넣었다. 그리고 다시 이철용 의원에게 드렸다. 물론 이철용 의원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좀더 와글와글한 뒤에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우리들도 사무실로 돌아왔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다음날 조·중·동 같은 메이저급 신문에는 김재광 부의장을 매우 근접경호(?)하는 두 남자 선배님의 사진이, 마이너급의 몇몇 신문에는 우리들 넷이 쓴 각서가 각각 1면을 도배했고 야당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당시 현장 속기사들을 법정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등 한동안 그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했다. 나는 한동안 그야말로 ‘졸아’ 있었고 주무님은 과장실에 며칠을 왔다갔다하시더니—과장실이 아닌 국장실이나 총장실인지도 모르겠다—해명서인지 시말서인지를 쓰셨던 것 같다.



그렇게 생생하게 그러나 어리벉벉하게 그리고 약간의 줄 속에서 나의 여의도에  
서의 첫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끔 '시보'를 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순진무  
식했던 때가 떠오르면 피식 웃음이 난다. 그랬었는데 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20년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일까?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  
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 기억 속에서 90년 7월 14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  
었다. 매일이 매일 같은 나의 일상에 그나마 하나의 애깃거리를 보태준 당시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할 전하고 싶다면 좀 우스울까? 그래도 어쨌든 고맙다.

덕분에 하나 득이라면 처음부터 워낙 세계 본회의장 장내소란 상태를 경험한 탓  
인지 그 후로 웬만한 장내소란 상태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꼬방동네 사람들' 등 베스트셀러 작가 출신 국회의원  
이었던 이철용 의원은 한때 음반까지 발표하는 등 아주 잠시 가수생활을 하시다  
요즘은 안국동에서 통(通)이라는 점집을 하신단다. 그분 인생 참 부럽네.



## 낯선 곳에 가서 친구 사귀기

| 최윤정 |

“필자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미국 위스컨신대학교에서 기록  
관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학교를 정하고 기숙사 아파트를 신청하기 위해 계약금을 부치며 가슴 설레던 것이 벌써 3년 전이다. 하긴 국회로 돌아온 지도 거의 1년이다 되어 간다. 설렘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찻찻했던 것은 공부 부담이나 언어 문제보다는 사람 사귀기였다. 매디슨이라는 중소도시의 유학생 사회에서 나는 학생에 속하는 나이도 아니면서 남편 따라온 사모님도 아니었기에 우선 소속이 불분명했다. 게다가 사교성도 없고 사람을 끝만한 유머나 장기도 없는 나로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잘 처리하고 2년간 열심히 공부나 하다 와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떠난 길이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부터 친구 사귀기를 포기했다. 아니, 친구는커녕 누구 한 사람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나이 40대 중반에 유학이란 걸 갔으니 아파트 단지에서 간혹 마주치는 한국 사람이 있어도 그가 남자일 경우는 남편 없이 온 여자라 좁은 한국인 사회에서 무슨 말이라도 날까 두려워 선뜻 말붙이기 어렵고, 여자일 경우도 대부분 이삼십대의 젊은층들이라 중고등학생 자식을 둔 '이주머니'와는 호칭부터 불편해서 별로 트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인터넷의 힘을 빌려 알게 된 여러 정보를 토대로 아이들 학교 가서 입학시키고 아파트 관리실 가서 전화와 인터넷 신청하고 은행 계좌 트고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되어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교수가 웅얼거리며 말한 첫 번째 과제물 제출일이 다음주 화요일인지 다다음주 화요일인지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몇 명씩 그룹지어 앉아서 서류를 검토할 때 엉거주춤 뒤편에 있으면 아이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통알 수가 없었다. "이리 와서 같이 보자"라며 내 옷 소매를 끌어당겨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나와 처지가 비슷한 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될 것도 같은데 '기록'이라는 공통 단어 하나로 결정한 기록관리학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에서 영어나 역사학을 전공하고 오는 과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외국인이 없었다.

기록물관리학과는 도서관대학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도서관학 필수과목 18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첫 학기에 수강한 정보조직학은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매주 과제물을 내야 했다. 교수가 그룹을 만들라는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옆에 앉은 사람과 짝을 만드는 눈치였다. 그런데 내 옆에 앉았던 금발머



리 여학생은 교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버렸다. '내가 동양인이어서 나랑 짝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나가버렸나 보다.' 대뜸 이런 자격지심이 들고 자존심도 상했다. 수업을 마치고 앞으로 나갔다. '다음 주부터 짝과 함께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 옆에 앉았던 학생이 일찍 나가는 바람에 짝을 못 정했다, 숙제를 혼자 하면 안 되겠느냐,' 대충 이런 요지로 마음속에서 치미는 열등감을 누르며 최대한 또박또박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했다. 그러나 교수는—그는 대만인이었다—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그리고 나의 심정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자기도 나와 같은 문화권에서 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짝을 찾아봐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 과목을 듣는 전체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 파트너를 찾아야만 했다.

이곳까지 와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였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왔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우습기 짝이 없지만 그때는 옆자리에 앉았던 학생에게 거부당하고 숙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내 짝이 되어 달라는 이메일을 써야 되는 것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학생들의 이메일주소를 찾았다. 교수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짝을 못 찾아 숙제를 혼자 해서 낸다는 것은 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로 부터 꼭 답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다해 이메일을 썼다. 일단 내 소개부터 하고 짝을 찾는다는 내용을 쓰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혹시 실수가 있을 까봐 몇 줄 안 되는 글을 읽고 또 읽어 확인한 후 보내기 단추를 눌렀다.

그리고 몇 분마다 한 번씩 답장을 확인했던가? 생각보다 빨리, 한 30분도 되지

않아서 첫 번째 답장이 왔다. “네가 아직 못 구했다면 나랑 파트너를 하자.” 나는 서둘러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답장을 쓰는 사이에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답장 쓰기를 중단하고 그들이 보낸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이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무시당한 느낌, 자격지심 속에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신감이 누군가가 내 메일에 답장을 해 왔다는 기쁨과 가느다란 흥분과 함께 회복되는 느낌이었다. 한 시간쯤 지나서 또 하나의 이메일이 왔다. “안녕, 나는 아까 네 옆에 앉았던 M이야. 파트타임 시간에 맞춰 급히 떠나서 미안해. 네가 아직 짝을 못 구했다면 나랑 짝하자.” 나는 M에게 파트너를 하자는 답장을 썼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미 짝을 구해서 너와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 내용과 함께 네가 짝을 못 구했다면 아무개, 아무개가 나한테 연락을 했으니 그들과 연락해 봐라라는 친절한 안내를 보낼 만큼 여유를 찾게 되었다.



나는 그 학기 내내 M과 매주 만나 숙제를 같이 했다. M은 영리하고 친절한 친구였다. 다른 팀은 편법을 써서 둘이 번갈아 한 주일씩 맡아서 숙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M은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늘 바쁜 시간을 쪼개 약속을 잡고 컴퓨터실에서 만나 함께 숙제를 했다.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세 가지 파트타임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첫 번째 시련으로 다가왔던 짝 구하기 미션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M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이 보낸 답장을 읽으며 피부색이 다르고 자라온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사람은 (학생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또 친구가 되지는 못했어도 많은 아이들에게 나에 대해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중 한 아이는 어떻게 짝 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생각을 했냐고 하면서 나를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앞서가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 그중 한 사람이 보낸 이메일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받았던 쪽지편지와도 흡사했다. "새 학기가 되어 모르는 사람들이운데 앉아 있다. 창가로는 호수가 보이고 호숫가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또 왜 여기 앉아서 숙제 걱정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메일을 보고 나는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냥 사람이 사는 데야. 아무것도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가 않음을 확인한 안도의 웃음이었다.

나의 첫 번째 미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아쉬우면 적극적으로 내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2년간의 나의 객지생활에 큰 도움을 준 기본 원리가 되었다. 아무도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는다. 친구가 필요하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그리고 몇 명의 꽤 친한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그중 D는 누군가에 대해 얘기할 때는 꼭 "내 친구 누구"라는 식의 말을 많이 했다.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 얘기할 때 "내 친구 윤정"이라고 얘기할까? 기말 과제에 쫓기고 있던 어느 11월의 주말에 불쑥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납치' 해 가려고 왔다고 말하며 문을 들어서던 D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곳에서 늘 서울을 그리워하며 살았듯 앞으로 꽤 오랫동안 매디슨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그리워할 것 같다.



# 영원한 나의 멘토(Mentor), 그녀에게 보내는 이메일

| 김영중 |



해마다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여의도의 4월은 참 곱습니다.

연노란 산수유가 시집은 새색시마냥 수줍게 피고, 연둣빛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분홍빛 벚꽃이 언뜻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제 상사병은 도진답니다.

너무 오랜만이지요? 천천히 내리는 비에 젖어 오늘 하루는 밤 놓고 선배님을 그리워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에 가려고 노트를 챙기다가 문득, 꼭 찬 20년 세월이 정지한 듯한 착각을 합니다. 무심히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고, 여분의 불펜을 주머니에 꽂으면서 병아리가 어미닭. 쫓아가듯 그렇게 선배님 뒤를 줄줄 따라나서던 제 모습을 보거든요.

키도 고만고만해서 아마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S계장님은 우리 짝 이름이 '주·중' 이라서 주말은 없고 늘 일만 한다고 빙글빙글 놀리셨던 걸 보면 꽤 일복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입사했던 88년은 국정감사의 부활 때문에도 그랬지만 온갖 "청문회"로 유난히 새벽 퇴근이 잦았던 것을 생각하면, 햇병아리를 데리고 고생하셨을 선배님

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서 고백하지만요, 회의록의 절반이 한자라는 것은 정말 고문 그 자체였습니다. 원고지에 그리다시피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게다가 제 글씨는 오죽 또박 또박이었게요? 결국 원고지 한 뭉치 들고 집에 가서 한자 연습과 함께 어른스런(?) 그러면서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글씨체를 연습했지요. 혹시 그때 이미 눈치 채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요? 그게 제게는 또 하나의 속·기(速記: 빨리 쓰기) 연습이었습니다. ㅋㅋ!

세월이 어찌 이리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님이 이 곳을 떠난 지도 어언 10년입니다.

지금도,

육중한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귀 기울이다가

제 안에 살아있는 선배님을 느낍니다, 뉴욕에서 행복하실 선배님을요.

꼬박 20년을 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녹록치 않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꽃 같이 어여쁜 후배를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그마한 키,

작은 손의 선배님이

남기고 간 것을 저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홀연히 떠난(제게는 그랬거든요) 선배님을 닮아야겠기에 선배님 생각에 흠뻑 젖은 오늘이 행복합니다.

발그레한 꽃망울들이 널모레쯤이면 화사한 연분홍으로 여기 윤증로를 수놓겠지요. 그날,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 아름다운 그대의 후배 Y 드림 -



## 나의 인.연.

| 강영욱 |

» 2008년 5월 국회 본청.

지겹던 천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이다. 로텐다 공사를 하는 덕분에 우리는 사랑방을 잃고 '빨간쪽지' (주로 의정기록과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로 답소를 대신하는 날이 많아졌다. 꼭 1년 전이다, 내가 국회에 입성한 지도, '입성'이란 말이 우습지만 정말이지 나에겐 그 말 외엔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힘든 수험생활을 끝내고 바라던 직장에 들어오던 날은 마치 전투에 승리한 개신장군이 성문을 열고 들어오는 딱 그 느낌이랄까. 그런데 어느덧 계절은 내 번을 돌아 입사 때의 그 계절이 되었고 내가 벌써 후배를 기다리고 있다니……

입사 이후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 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글을 통해 1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있으랴. 자, 그럼 1년 전으로 훌쩍 가 볼까나.

» 2007년 5월 국회 본청

‘똑똑’ 소리에 덩달아 내 심장도 마구 뻐다. 국회 본청 복도는 창이 하나도 없다. 어두컴컴하다. 두렵다. 내 앞의 이 문만이 사무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문이 열리고 전면의 큰 창에서 햇빛이 쏟아진다. 눈이 부신 탓에 나도 모르게 눈살을 움츠렸다. 얼른 자세를 고치고 고개를 숙인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방에 발령받은 강영옥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옥입니다.”

“어머 어서 와요, 앉아요.”

늦은 나이에 국회와, 아니 더 정확하게 의정기록과와 인연을 맺은 첫 날의 풍경이다.

직장생활의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부모님의 손을 놓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이라는 것을 해 보았고 그 뒤 중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작이라는 것을 해 보았다. 하지만 이번 시작은 시간의 트랙 위에서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그 거리만큼, 다시 새롭게 달리기 위해 출발선에 있다는 점에서 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시작의 중심에 의정기록과가 있다. 처음 발을 디딘 곳이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속기계라는 책에 글을 실어 달라는 요청에 난 직잡이 당황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쓰면 된다는 말에 난 망설이며 글을 써 보기로 했다. 의정기록과에 있지만 속기사가 아닌 나의 글이 신선함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떻게 글을 쓸까 고민을 하던 중 문득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떠올렸다. 그 곳에는 제복을 입은 속기사, 시끄러운 타자 소리, 출출함을 채워 주는 간식, 바쁘게 지



나치며 부딪치는 어깨들이 공존한다. '그래, 이 사무실에 공존하는 다섯 가지! 이 오감을 가지고 한번 써 보자.'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

그럼 오감 중 '시각' 부터 찬찬히 떠올려볼까.

처음 사무실을 들어섰을 때 먼저 눈에 띈 것은 책상 위에 놓여진 독특한 기계들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기계다. 텔레비전도 입구부터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다들 똑같이 보이는 제복들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사무실에 며칠 있다가 보니 속기사들이 이 제복을 입고 텔레비전에 등장한다. 하지만 화면으로 볼 때의 그분들은 평소와는 다른 낯설음으로 다가왔다. 사무실에서의 온화하고 장난기 섞인 그 얼굴들은 온데간데없고 굳게 다문 입술, 꺾꽂힌 자세, 빠른 손놀림과 엄숙한 표정만이 보일 뿐이다. '프로다!!' 내가 본 속기사들에 대한 첫 느낌이었다. 지금은 어느덧 익숙해져 뉴스방송이나 신문에서 낯익은 속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친구들에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회의장과는 다른 사무실에서의 에피소드와 함께, 그럼 친구들 반응은 다 하나 같다. "어머,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데....."

'탁탁탁' 우리 사무실에서 항상 들리는 독특한 소리다. 바쁠 때는 여기 저기 동시에 소리가 나는 탓에 '타타타타타' 로 들리기도 한다. 때론 회의장에서 녹음한 내용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진다. 되돌리기, 재생, 되돌리기, 재생……. 똑같은 어구(語句)가 여러 번 울리고 여기저기 "이거 아냐?" 하는 말소리가 들린다. 불명확한 발음을 들으며 심사숙고 하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더 들을 땐 사무실은 회의장의 발언자 목소리 외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나도 일조를 할 수 있으려나 가만히 들어보지만 속기사들의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우리과는 대부분의 속기사들이 여성이다 보니 여기만의 독특함이 있다. 화장품 냄새는 물론이고 부단한 움직임 때문에 먼지 냄새가 일기도 하고 업무량이 많을 때는 파스 냄새가 코를 찌를 때도 있다. 화초를 좋아하는 그녀들이 있기에 꽃향기를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향기로운 건 아이들 소풍 때면 어김없이 풍기는 김밥 냄새이다. 물론 혹자들은 김밥 냄새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물론 특별할 것도 감탄할 것도 못되는 평범한 냄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정성스레 손수 싸 오신 김밥이 펼쳐질 때면 초코파이 향보다 더 진한 정(情)내가 짝~ 풍긴다. 쿵 쿵~

후배들을 아끼는 선배님들 때문에 미각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실을 벗어나야겠다. 여의도 맛집에 데려다 주시는 선배님들 덕택에 벌써 여의도 맛집은 대충 다 내 머릿속에 맛집지도로 그려져 있다.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 바쁜 시간을 쪼개 가며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나에게 점심시간은 더욱 소중한게 느껴진다. 우리과에서 점심 약속이 많은 나를 보고 동기들은 묻는다. 삼삼오오 어디를 그렇게 가냐고, ^^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했던가. 이제 좀 있으면 나도 후배가 생길 텐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많이 받은 걸 어떻게 다 베푸냐. 그래서 결심했다. 후배들이 들어오면 외면하기로... ^^

이젠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여성들이 많은 사무실 특성상 선배님과 또래들과 손도 잡고 팔짱을 끼기도 한다. 이쁜 그녀들과 다정히 걸어갈 때면 못남성들의 부러움과 함께 소개팅이라는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난 큰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대기표 뽑으세요!!" 그렇게 얼어먹은 음료수가 몇 잔인지. 때론 그날 의상이 이쁘다며 장난삼아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는지 번갈아 물어보기도 한다. 참 그러고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다며 선배님에게서 옷



선물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풍경들을 볼 때마다 여기가 회사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 입사하기 전, 딱딱함이라는 분위기를 먼저 떠올린 나에게 이런 재미들은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윤택유가 된다.

꼭 1년 전 이맘때 힘든 수험생활과 불안정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바라던 공무원이 되었다. 너무도 간절했기에 벅찬 기쁨, 그리고 다른 동기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많았다.

내가 하는 편집 업무는 꼼꼼함과 정확성을 요하는 일이었기에 내가 놓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계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친절히 가르쳐 주셨고 선배님들 또한 애정 어린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정말 운 좋게 잘 적응해 오고 있다. 이런 행운은 계 편성으로 사무실이 바뀐 지금까지도 새로운 좋은 분들과 계장님과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분위기가 출근하는 나의 발걸음을 해깝게 해 주는 원천이리라.

TV속에서만 보던 속기사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하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인 것 같다.

의정기록과와의 인연! 국회사무처의 이렇게 많은 속기사분들과의, 어쩌면 인사 한번 못 하고 지나쳐 버릴 뻔했던 좋은 인연들을 놓치지 않았음에 감사한다.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났고 받은 게 너무 많기에 본청 로텐다를 끼고 돌 때면 항상 즐겁다.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격려와 사랑이 분명 어수룩한 제가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 힘든 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처음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것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쁜 마음들 고이고이 소중히 간직할게요!”



## 90동기들의 화려한 탈출

| 김미라 |

우리 1990년 입사 동기는 12명인데 퇴직한 수복이와 북경에서 유학 중인 은화 언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모인 동기들, 이제 애들도 웬만큼 키우고 여유가 생겨서인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싶어 하는 눈치였는데... 게다가 올해는 4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황금의 시간,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원 구성까지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도 하니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가까운 곳으로 동기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이 나왔고,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현숙이가 추진단장을 맡겠다고 자청했고, 우연히 꺼낸 얘기가 갑작스럽게 현실로 되어 노랑풍선이라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상해·소주·항주 3박4일 상품으로 4월 27일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동기 10명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가는 것으로 최종 확



정되었다.

첫날인 27일 일요일 아침, 평소 때의 해외여행 준비와는 사뭇 다르게 대강 대충 있는 옷 몇 가지만 주섬주섬 챙겨서 순영 언니, 나, 경숙, 현숙 (순정리와 기선이는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음) 이렇게 넷은 순영 언니 아저씨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작년 국감 이후 처음인 인천공항은 그다지 낯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설레지도 않았다.

공항에서 순정리와 기선이를 만나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에서 정신없이 쇼핑을 하고 동방항공에 탑승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행기가 깨끗하고 괜찮았다. 기내식도 좋았다. 정신없이 수다를 떨면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상해 푸둥공항에 도착했다. 푸둥공항은 인천공항과 느낌이 비슷했다.

공항에서 우리의 3박4일 가이드 김옥화 언니를 만나 33인승 버스에 몸을 실었다.

첫 코스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던 장소라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았다. 대체로 그 당시 물건들이 양호한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낯익은 국회의원(박진 의원)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다. 임시정부로 가는 길은 상해에



(출발 전 인천공항에서)

서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 깔끔하다는 인상은 주지 않았다. 빨래들이 다 밖으로 나와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코스는 신천지라는 곳이었는데 임시정부에서 차로 5분 거리도 안 되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신천지였

다. 꼭 유럽의 어느 거리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 이국적인 분위기였다. 각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거리 풍경도 유럽 도심의 골목길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그 사람들과 어울려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패키지여행의 아쉬움을 약간 느꼈다고나 할까.)

다음은 홍구공원, 윤봉길 의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역사적인 장소.

20대 청년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도 깊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철이 일찍 들었나 보다.

홍구공원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휴일 날 공원에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한가로이 작은 배를 타고 데이트하는 젊은이들, 우리의 사는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다음은 우리가 기다리던 저녁 식사, 중국 현지식이라고 했다. 식당 이름은 '태가촌', 전통 중국 복장을 한 시아오지(아가씨)들이 춤을 추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음식은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먹을 만했다.

다음은 상해 서커스 관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커스, 어떻게 사람의 몸이 저렇게까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마지막 오토바이 서커스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다. 저렇게까지 하려면 얼마나 연습들을 했을까 싶었다.

저녁 9시, 다음 장소인 항주로 이동, 소요 시간은 거의 3시간, 밤 12시에 항주 호텔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6시 반 기상, 7시 20분朝食, 호텔朝食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아 이구나'가 절로 나온다. 먹을 게 없고 색깔도 왜 그렇게 미운지, 하지만 시장이 반



찬이라고 먹기를 시도했더니 또 먹을 만했다.

항주에서의 첫 코스는 항주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성황각,피렌체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두오모 성당에서 바라보는 그곳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다.

다음은 절강성 최고의 자연호수라고 불리는 서호에서 유람선을 탔다. 예쁘게 생긴 목조 유람선이 운치를 더했다. 유람선 안에서 만났던 다국적 친구들, 정말 여행의 진수를 보는 듯했다.

서호 유람선 관광 후 버스로 이동, 한국식으로 삼겹살을 먹었다. 식당에서 만난 미소년의 서비스 덕분에 더없이 즐거운 점심식사를 했다. 이번 여행의 특징은 그다지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구성원들 모두가 너무 즐거워했고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 많이 웃고 즐거워했던 것 같았다.

다음 코스는 불교문화의 상징이라는 동방문화원, 그 규모에 또 한번 기가 짝 죽었다.

큰 돌기둥을 세워 놓고 거기서 석가상이 올라와서 물세례를 주는 곳이었다. 약간 우스운 듯했는데 중국 현지인들의 이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경건해 보였다. 매일 한 번 오후 1시에 그 특별한 세리머니(?)가 있다고 하는데 운 좋게도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 물세례를 받으면 병이 없어진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탑돌이도 아니고 호스에서 뿌려지는 물을 따라 물세례를 받으려고 뛰어다녔다. 꼭 어릴 때 소독차가 뿜어내는 연기를 맞으려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래도 우리는 마냥 즐거웠다.

불교 코스를 끝내고 도교와 유교 코스로 이동했는데 거기는 한창 공사 중이었다. 땅이 넓은 곳이라 그 규모도 어마어마했다.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되는 규모였다.

오후에는 용정차 농원과 라텍스 공장에 갔다. 패키지여행의 필수 코스인 쇼핑



〈유원에서 신 선생님 부부와 함께〉

을 위해 할 수 없이 간 곳이다.

참, 배놓을 수 없는 건 발 마사지, 말쑥하게 생긴 청년들이 마사지를 해 주었다. 마사지를 업으로 하기에는 아까운 청년들이었다. 짧은 중국어로 그들이랑 수다 아닌 수다를 떨었다. 그래도 평소에 익힌 짧은 중국어로 현지에서 통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다.

저녁에는 송성 가무쇼,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었다. 오페라도 아닌 것이 연극도 아닌 것이 연출이면 연출, 구성이면 구성, 등장인물 등 모두가 입이 딱 벌어지게 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리랑은 낯선 이국에서 애국심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저녁에는 소주로 이동해서 다음날을 위해 휴식.

4월 29일 아침, 호텔에서 조식 후 유원을 관광했다. 개인 정원이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방대하고 아름다웠다. 다음 불교 사찰인 한산사, 유명한 시 하나가 있었는



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다음은 중국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호구탑 관광,形形色색의 꽃들로 장식된 입구가 너무 아름다웠다.

실크 공장을 견학하고 동인당 한의원에 들러 진맥을 했다.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는지 거기에서 딱 걸려서 약을 지었다. 일단 몸이 좋아진다니까, 이제 나도 늙기는 늙었나 보다.

점심 식사 후 상해로 이동, 동방명주 타워에 올라 상해 시내를 구경했다. 꼭 뉴욕의 맨해튼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다. 랜시리 아이들이 걱정되고 개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하는 장소였다.

저녁을 먹고 상해 황포강 유람선을 탔다. 저녁 야경이 정말 멋있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을 다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멋있었다. 왜 우리나라 땅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건지, 아쉬움이 계속 남았다. 내가 처음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에 대해 무지무지 배 아파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이제는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옛거리로 향했다. 서울의 인사동과 비슷한 곳이었다. 참 특별한 멋이 있는 곳이었다. 옛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안에 현대를 잘 담아놓은 듯한 거리였다. 시간이 부족해서 대중 보고 다시 남경로로 향했다. 이곳은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거리라고 했다. 꼭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거기서 신 사장님(패키지 멤버)이 칭따오(청도) 맥주를 사 주셨는데 남경로 거리에서 칭따오 맥주와의 만남 또한 우리 여행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해 주었다.

(신 사장님은 우리의 패키지 멤버다. 동부인해서 오셨는데 그야말로 멋진 분이셨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외국여행을 많이 해 보신 분인 것 같다. 유창한 영어에 스페인어까지 구사를 하신다니까. 부인의 사진 실력이(전문가, 포토숍



운영) 보통이 아니라 우리는 연신 모델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지막 날 밤 상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앞서 머물렀던 곳보다는 훨씬 훌륭한 호텔이었다. 내일의 귀국이 다들 아쉬웠던 모양이다. 잠을 자기가 아까워 다들 모였다. 술 한 잔도 없이 모여 2시 반까지 수다를 떨었다. 40대 아줌마들 수다의 진수를 보이는 듯했다. 두 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5시 20분에 호텔에서 조식을 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다. 푸둥공항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아침에 버스를 타고 상해의 끝에서 끝으로 달리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다. 한 시간 정도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다. 중국의 무궁무진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 중국이 대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항에서 간단한 수속 후 김옥화 가이드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서울발 동방항공에 다시 몸을 실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상해·항주·소주 여행은 중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모든 체험들이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름지기 여행이란, 일상을 떠나 낯선 곳과의 만남은 설레임 이상의 뭔가를 준다는 것.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다.

평소 중국에 대한 정보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여행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소득이 많았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 뭔가 삶에 활력소를 주는 듯한 느낌을 크게 받았다.

6월이 되면 18대 국회가 개원한다. 짧았지만 의미 있었던 이번 여행의 추억을 가끔 떠올리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음의 또 멋진 여행을 기대하며 동기들아 파이팅!!(아마도 다음은 앙코르와트)

## 국회회의록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는 속기인 모두가 공분했던 『월간조선』 8월호 기사 ‘대한민국 민의가 영터리로 기록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사 제목으로 속기인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며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반박 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측은, 극히 일부분을 과대 포장하여 전체인양 표현한 것은 평생 기록보국의 신념으로 살아온 속기인들의 명예에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 주었다며 사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9월호 ‘독자의 편지’란에 반박 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이하는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에서 『월간조선』 측에 요청한 반박 보도문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 충격적인 기사와 허탈감

지난 8월호 월간조선 기사 “충격고발, 엉망진창 국회회의록 / 대한민국의 민의가 영터리로 기록되고 있다.” 를 본 사무처 당국과 전·현직 속기인들은 아연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속기록에서 얼마만한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이토록 자극적인 제하의 기사가 작성되었을까.

아침에 조간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급히 월간조선을 구입, 기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방대한 회의록 속에서 어찌면 이리도 족집게처럼 결정적인 오류들을 찾아내어 기사화할 수 있었을까. 국회회의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정성껏 음미하기 전에는 좀처럼 인지하기 어려운 오류들이었다.

그러나 막상 기사를 모두 읽고 난 소감은 한마디로 허탈감, 그것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사에 인용된 예문이 모두 35개인데, 그중 2002년도 회의록에서 1개, 2003년도 회의록에서 3개, 2006년도 회의록에서 1개였고, 나머지는 모두 1993년 - 1999년도까지 7년 동안의 회의록에서 뽑은 것이었다. 1년치 회의록에서 평균 4개씩인 셈이다. 국회 회의록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을 비롯해서 17개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정감사 회의록,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록 또 각 상임위나 특별위에서 수시 또는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소위원회 회의록 등 부록까지 해서 연평균 약 8만여 쪽을 헤아린다. 기자가 그 방대한 회의록을 통독했을 리는 없고, 쌀밥에서 뉘 골라내듯 오류를 찾아내어 기사화한 것 같은데 그 정성이 놀랍기는 하지만 15년 동안의 회의록에서 찾아낸 35개의 오류가 과연 '충격 고발'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 35개의 예문이 전체 국회회의록이 '엉망진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기사화 과정에서 제외된 더 많은 예문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용된 예문에 나타난 오류들 또한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속기인들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한다. 속기사도 인간인 이상 어찌 100% 완벽을 기대할 수 있을까마는, 속기록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자기일인 듯 얼굴을 못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속기인들이다.

둘째로 느낀 허탈감은 기사의 뒷부분에 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국회 의정기록과 중견 직원이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내부 교육 목적하에 오칭·오기 사례를 모아 펴낸 <의회 속기록 작성의 원리와 실제>를 소개하면서 그 책 속에 담긴 속기사들의 애환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본 기사가 회의록의 오·탈자를 시비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 시대의 사초로서 한 글자도 허투루 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에 비해 논조는 사뭇 부드럽다. 그러나 현대인들 중에 월간지를 구독하거나 어떤 기사를 제대로 정독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 신문에 나는 광고 문안이나 책 표지에 적혀 있는 기사 제목을 훑어보기만 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심겨진 속기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누가,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가.

## 씻지 못할 상처, 그러나 보다 깊은 관심을

우리 속기인들 더 나아가서 사무처에서는 이번 월간조선 기사를 대하면서 모두들 분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 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일반 국민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속기록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헌 60주년을 맞아 신문, 방송 등에서는 국회의회의록에 대한 연재와 특집 등을 통해 속기록의 중요성과 속기인의 사명에 대해 방영했던 터라 그 충격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국회 의정기록과(전 속기과)의 속기사들은 해방 이래 해방공간과 6·25 전란, 각종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사초를 기록한다는 정신으로 때로는 목숨을 바쳐 이 업무를 감당해 왔다고 자부한다.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천여 년간 왕조 권부의 움직임을 실록으로 기록한 우리의 기록문화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드물다 하겠다. 오늘날 조선왕조실록만이 대부분 온전히 보존되어 유구한 역사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1997년 UNESCO는 이를 인류가 보존하여야 할 '세계기록유산' 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유구한 전통과 자랑을 가슴에 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시대의 사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전문성을 갈고 닦아 속기록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몸부림치는 속기사들의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 준 것이 이번 기사이다.

앞으로도 우리 속기인들은 이러한 사명감과 정신을 잃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자 한다.

정도 언론의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자매지 월간조선은 이 점을 깊이 성찰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언론 본래의 역할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러한 우리의 뜻을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직원일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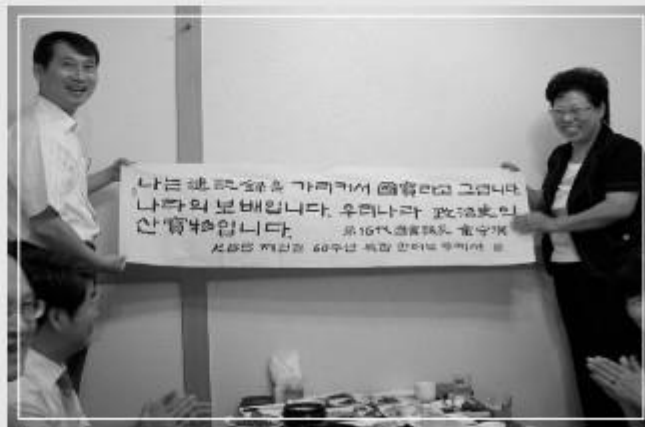
# FOCUS 포커스

KBS 제헌절특집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나는 速記錄을 가리켜서 國寶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나라 政治史의 山寶物입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속기사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 주신 김수한 15대 국회의장님을 만나 “속기사는 역사의 산증인이다.”, “장인이 예술작품을 만들듯이 속기사는 속기록을 만든다.”, “속기사는 발언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전판이다.” 등의 주옥같은 말씀도 직접 듣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2008. 8. 19)



왼쪽부터

김덕진 사무관, 이동준, 이경식 의정기록1과장, 안기철 사무관, 유미형, 조신자, 손계옥 의정기록2과장, 김수한 15대 국회의장, 최예숙 서기관, 조영기 서기관



## 제41회 정/기/총/회

41th



대한속기협회는 2008년 1월 24일 오후 7시 여의도종합상가 5층 신동양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안기철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국민의례, 성원 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지난 2007년 1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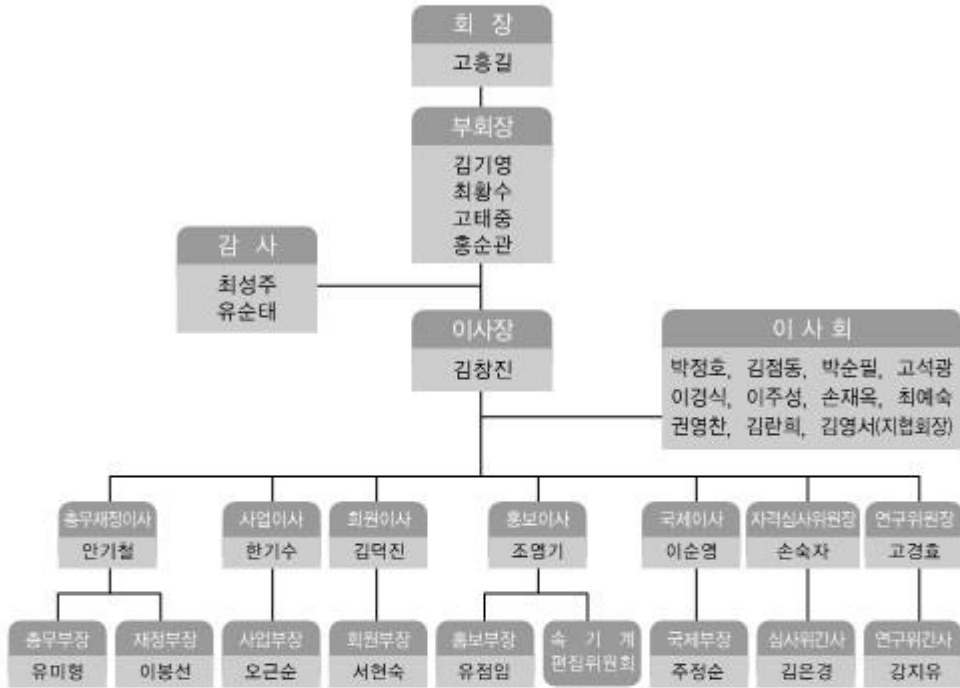
개최된 속기경기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다음으로 인사말씀은 부득이한 정치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고홍길 회장을 대신해 김기영 부회장이 하였는데 조금은 저조한 정기총회 출석률을 높이는 데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과 우리 속기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유지·발전되고 있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된 방법으로 완벽한 기록을 해내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후 회의는 김창진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안기철 총무이사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07년도 결산승인의 건 결산보고와 최성주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2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1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 협회 임원 및 기구표



## ◎ 각 부서 업무 분담

<b>총무부</b>	인정 문서 접기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 연락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b>재정부</b>	예산에 관한 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b>홍보부</b>	홍보에 관한 사항 출판에 관한 사항 속기개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속기문과의 보급에 관한 사항	<b>회원부</b>	회원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지부의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원의 주소록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회원과의 통신에 관한 사항
<b>사업부</b>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회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의 취업 양성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b>국제부</b>	국제속기타지연령 활동에 관한 사항 외국 속기개외의 교류에 관한 사항 외국어 속기에 관한 사항
<b>연구위원회</b>	속기문의 연구에 관한 사항 기계속기 연구에 관한 사항	<b>자격심사위원회</b>	회원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편집후기

www.steno.or.kr

마침표를 온전히 찍고 싶었는데.....  
속기계를 읽으시는 분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준다면  
마침표를 제대로 찍었다고 스스로 위안 삼고 싶다.

任

홍보부 편집기자가 된 후 세 번째 속기계다.  
매년 정신없이 속기계를 만들어 낸 덕에 편집후기를 쓸 때면  
후련함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마음이 든다.  
그렇지만 다 끝나고 속기계가 나온다니 일단은 기쁘다.^^

朴

역사..... 세월은 빠르다.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 팀의 마지막 속기계 발간이라 하니 시원하기도, 섭섭하기도,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던가. 우리 홍보부의 마지막이  
새로운 홍보부의 시작을 의미하니 그들에 의해 더욱 알차지고  
더욱 빛날 속기계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芝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님 어려운 작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또 한 권의 속기계가 완성되었다.  
나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는 속기계는 계속되겠지.....

眞

'올해에는 『속기계』에 좀 더 충실하고 성실해야지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충실함이 '드러났는지' 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히 드러나야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無爲' 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열정' 이 나를 경책해 주는 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權





### ➤ 투고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TEL, 02)788-2371, 2471

**홈페이지** : [www.steno.or.kr](http://www.steno.or.kr)

**e-mail** : [yooji019@assembly.go.kr](mailto:yooji019@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제언 등



### ▶ 납입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 보내실 곳

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회 비 : 농협 036-01-112844 이봉선(협회재정부장)

## † 속기요금표 †

1998. 2. 8 시행

속기기본료	1시간당	300,000원
녹음재생	1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1시간당	350,000원
외국어속기	1시간당	400,000원
요점속기	1시간당	200,000원

-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 총 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 지방 출장 시에는 상기 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 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협의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내)  
전화: 02)788-2371~6

## 速記界

발행: 2008년 8월 25일

발행인: 고흥길

편집인: 조영기

기자: 유점임/ 박윤혜/ 김지숙/ 이경진/ 권초롱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인쇄처: (주)조양애드컴

전화: 02)788-2371-6

F A X: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

